朝鮮日報
夕刊
二十六日(土)

「總噸數主義에 依한 共通最高限設定」

會議召集日까지 豫備折衝을

藤井代理大使에 訓電

【東京電話電通】軍縮會議의 招請狀에 對한 日本政府의 回答은 同來週末의 閣議에 附議하는 同時에 代表를 備定하야 英國側에 通告할 豫定인데 十二月二日의 會議召集日까지는 約一個月의 餘裕가 잇슴으로 廣田外相은 近近 藤井駐英代理大使에게 訓電을 發하야 豫備的 折衝을 開始식힐 豫定이다 卽 英國政府의 招請狀에는 會議의 議題에 對하야 何等의 提案도 업서 全白紙狀態에서 全般的으로 海軍問題의 討議를 進行하기로되여잇슴으로 會議開催前에 議題及討議方法等에 對하야 各國間의 諒解를 갓게하야 日本의 主張을 說明할 必要가 잇슴으로 豫備的折衝을 식히기로 된것이다 그리고 日本側은 右交涉의 議題로서 總噸數主義에 依한 共通最高限設定의 主張을 堅持할 方針이다

軍縮會議招請 應諾回答要旨

【東京電話聯合】英國政府의 軍縮會議에 關한 正式招請狀에 對하야 日本의 參加回答은 來週二十九日(火曜)定例閣議에 附議하야 諒解를 求하야 即日 英國政府에 回答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右回答主旨는 華府 倫敦兩條約規定에 依한 海軍會議開催에는 欣然參加하야 英國의 招請을 妥當하다고 하고 不脅威 不侵略의 軍備를 目標로 各國과 隔意업시 意見을 交換하야 目的遂行에 努力할 意思를 가지고잇다고 應諾하는 意向을 表示하고 나아가 公正妥當한 軍縮協定成立을 希望하는 所以를 强調할터인데 右와 同時에 日本全權代表를 內示 通告하기로되엿다

軍縮招請狀에 對한 回答態度愼重!

海外兩省間代表人選等決定코 來週閣議에서決定

【東京電話聯合】英國으로부터의 軍縮本會議正式招請狀은 二十五日正午에 到着하얏슴으로 廣田外相은 먼저 閣議後 岡田首相에對하야 右를 諒承한旨를 報告하고 外務省에서는 重光次官 東鄕歐亞局長 堀內亞米利加局長 三氏가 次官室에 集合하야 招請狀의 內容을 逐條的으로 檢討하야 英國側의 眞意를 알기爲하야 約一時間에 亘하야 重要會議를 열고 更히 海軍省의 岡敬純大佐와 外務省加瀨軍縮課長과의 사이에도 事務的打合을하얏다 右招請回答은 極重大意義를 가진것임으로 海軍、外務兩省間에서 愼重協議하야 政府의 態度를 決定하야 來週의 閣議에 回答할것으로 解釋된다 그리고 會議開會必至로 되엿슴으로 兩省間에서 代表의人選、代表數等 審議決定을 하기로되엿다

日本側軍縮全權團內定

【東京電話聯合】十二月二日부터 開催될 軍縮會議에 日本全權團이 앞맛게가는데는 海路米國航路를 取하면 二十五日을 要하고 陸路西比利亞鐵道를 經由하면 十六日을 豫定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如何든 十一月十日頃에 東京을 出發케하지안흐면 안될터임으로 外務海軍兩省에서는 二十五日招請狀을 入手하는同時에 全權代表部의 構成에對하야 協議한結果

一、代表部의 構成은 小人數의 小規模로하야 海外合하야 二十名內外로할것

一、主席全權은 海軍省側에서 拔擢할것

右根本方針을 決定하고 大角海相은 同月午後 때마침 海軍進級會議에 出席한 軍事參議官大將永野修身氏에게 全權交涉을 行한 結果 內諾을 엇게되여 外務側의 全權駐佛大使 佐藤尙武氏와 가티 來二十九日閣議에 附議하야 正式으로 決定하기로 되여잇다 內定된 日本의 全權團의 일홈은 左와如하다

主席全權 海軍大將 永野修身
全權 駐佛大使 佐藤尙武
隨員 駐英大使館參事官 藤井啓之助
專門委員 海軍大佐(十一月少將에 進級) 岩下保太郞
同 海軍書記官 榎本重治
同 外務書記官 山形參
同 外務書記官 安東義良
事務總長 海軍大佐 藤田利三郞
同 海軍中佐 西田正雄

駐日유蘇聯大使 廣田外相訪問

國境委員會回答督促

【東京電話電通】유레니에프駐日蘇聯大使는 二十五日 外務省에 廣田外相을 訪問하고 前者에 提出한 國境混合委員會設置에 對한 日本側의 回答을 督促하엿다 이에對하야 廣田外相은 蘇聯側은 國境混合委員會를 組織하야 紛爭의 解決을 圖하기를 希望하고잇스나 滿洲國에서는 紛爭의 發生은 國境線의 不明確한데 基因되는것이라하야 먼저 國境劃定委員會를 組織할것을 先決要件으로하고잇다 그리고 右委員會에서 國境線을 決定할 地域은 먼저 興凱湖以南으로하자고 滿洲國側의 希望을 傳達하고 新提案을 提出하야 協議를 進하엿는데 유레니에프大使는 考慮를 約하고 會見을 終了하엿다

伊最少限要求提示

和協工作 最後段階에 進入

伊外務省沈默固守、會議의 內容은 重大

局面의 重大進展豫想

【巴里二十五日發聯合】伊太利大使체럿치氏는 二十五日夜 佛國外務省에 라발首相을 訪問하고 重要會談을 遂하엿다 席上에서 체럿치大使는 못솔리니首相의 訓令에 基하야 에디오피아에 關한 『最少限度의 要求』를 提示하고 紛爭處理의 可能한 基礎에 對하야 前後一時間에 亘하야 라발佛首相과 會談을 遂한것이라고 觀測된다 佛國外務當局은 『從來의 折衝의 繼續에 不過하다』고 主張하야 極端으로 沈默을 직히고잇스나 會議內容은 從來에 업든 重大한 것인것은 틀림업는바 局面은 玆에 重大進展이 豫期되게되여잇다 라발首相은 다시 클라크英國大使와 會見하고 체럿치大使와의 會見結果를 報告하고 本國政府에 移牒을 要請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但 英國政府의 態度는 和協工作과의 關係等이 잇는바 和協工作은 極히 델리케-트한 狀態에 잇고 佛國政府는 一切의 報道를 否定하야 情報의 漏洩防止에 努力하고 잇는것도 要컨댄 和協工作이 最終段階에 入한 證左이라고 觀測된다

伊首相對案全文

【巴里二十五日發聯合】라발首相의 努力에依하야 和協工作은 드듸여 具體的段階에 드러가고 못솔리니首相은 對案을 示唆함에 끄것다고 傳한다 右對案內容에 關하야는 佛國政府는 絶對秘密을 嚴守하야 一切言明을 避하고 잇는데 巴里各新聞紙는 和協案提示에對한 事實을 確認하야 『우블』『巴里소와르』等 各有力新聞은 依然히 示唆案의內容을 反覆報道하고잇는데 此等報道를綜合하면 伊首相의 對案全文은 左와如하다

▲和協提示條件

一、伊太利政府는 和協的제스추어로서 리비아植民地 遠征軍 二個師의 撤兵을 斷行한다 但 英國政府로부터 何等代償을 要求치아니할것

一、에디오피아軍과의 戰鬪行爲를 停止하야 새로攻擊치도안코 또 서로征服치안흘것

▲最少限度要求條件

一、伊太利政府는 遠隔地帶 오가덴州 다그레州 하랄州의一部에 事實上의 權益을 設定함 但 宗主權은 保護領化를 要求치안흠

一、事實上權域에는 伊太利軍의 駐兵을 認定하되 警察權은 英、佛、伊三國의 一九〇六年 十二月條約에 基하야 決定할것

一、事實上權域에는 에디오피아正規軍以外의 人民의 武器所持를 禁止함

一、本部는 五人委員會의 報告案에 基하야 國際管理를 施行함

▲若干項目條項

一、伊太利政府는 그러치마는 紛爭案을 採用하야 爲先五人委員會에 附託한 然後에 聯盟國相互의 承認을 要請함 右는 手續上多少困難이잇슴으로 라발首相은 먼저 理事會에 附託하기를 勸告하고잇는 模樣이다

對伊制裁發動의

空然遲延不可!

英和協工作을不期待

【倫敦廿五日發聯合】이든無任所相은 十一月一日 쥬네브에 出馬하기로 決定하얏는데 英國政府는 벌서 對伊太利制裁斷行準備를 整齊하고 制裁期日에 關해서도 이미 閣議決定은 보앗슴으로 聯盟의 決定잇는限 制裁斷行實行은 十一月上旬이라도 조곰도 支障업다고본다 그中 二十四日 라발首相과 크럭駐佛大使의 會見結果 伊太利側讓步의 限度도 알게되엿슴으로 紛爭의 急速한 解決希望은 全혀업고 制裁斷行 不可避의 態度를 決定한 모양이다 右에關하야 英國政府側의 見解를 要約하면 다음과갓다

一、伊太利側은 盛히 和協的意志를 强調하고 잇으나 今日까지의 라발首相 奔走의 結果는 伊太利政府는 交涉의基礎 되여야할 何等의實質的提案도 示唆하지안엇다

一、英國으로서는 伊太利의 解決案이 聯盟과 에디오피아政府 雙方의 受諾할수잇는 性質의것이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一、伊太利政府의 提案은 聯盟規約을 無視하고 또 에디오피아 領土保全을 不可能하게하는것이다

一、못솔리니 首相의 代辯者로 알녀진 카이다氏가 떠、이탈리아紙上에 伊太利는 에디오피아의 軍事的支配를 반다시 主張치는 안는다라고 말하고 잇슴으로 우리들은 伊太利側의 讓分 그 態度를 꼬친事實을 認定하나 적어도 에디오피아國의 一部 倂呑을 條件으로하는 解決에는 조곰이라도 同意할수업다

一、英國政府는 언제 實現될지 알수업는 和協解決로 말미아마 空然히 制裁發動을 遲延할수는 업다 그럼으로 經濟斷行에 關해서 旣定方針대로 나갈뿐이다

對伊制裁實施國發表

【쥬네브廿五日發電通】聯盟事務局은 二十五日까지에 對伊武器禁輸實施를 通告한 國家는 二十八個國 金融制裁實施에 應한 國家는 九個國 伊太利商品의 不買實施는 三個國 輸出禁止는 一個國이라는데 伊太利産業相互援助案을 受諾한 國家는 二個國이라고 公表하얏다 그리고 公表後 新히 또 武器禁輸實施를 通告하얏슴으로 武器禁輸國은 二十九個國으로되엿다

英米代表

豫想되는人選

【東京電話聯合】來十二月二日부터 開催될 倫敦海軍會議의 英米代表에對하야는 아직公報가업스나 大體左와 如하리라고 觀測되다

英國
▲主席全權 볼드윈首相
▲全權 호어 外相
▲全權 몬셀 海相
▲專門委員 칠트필드軍令部長
▲事務總長 크레기參事官

米國
▲主席全權 노만데비스上院議員
▲全權 링컨駐英大使
▲專門委員 스탄들레이提督
▲事務總長 아서른參事官

伊政府決定 軍縮會議參加를

【羅馬二十五日發電通】伊太利政府는 招請에 應하야 來十二月二日 倫敦에서 開催될 海軍軍縮會議에 參加하기로 決定한旨 二十五日 發表하엿다 그리고 外務省代辯者는 左와如히말하얏다 會議의 議題와 範圍에 對하야는 아직 充分히 알지는못하나 當然議題로 될事項에對하야는 이미 軍縮關係專門家의 사이에 豫備的調査를 開始하얏다

對日方針決定에 蔣介石氏極苦慮

日本의今後態度如何를念慮

그러나方針決定困難

【南京二十五日發電通】確實한側에 到達한情報에依하면 蔣介石氏는 過般南京時 汪精衛、黃郛、宋子文、孔祥熙、何應欽等諸氏와 會見하고 對日問題에 對하야 協議하얏스나 結論을 엇지못하고 鄕里奉化에서 아직도 熟慮를 거듭하고잇는데 月末頃에 歸國할 蔣作賓大使의 報告를 基礎로 對日方針을 決定하리라고 觀測되는데 蔣介石氏가 이와가티 對日方針에 苦慮하고잇는것은 日本의 新方針이 바야흐로 確立되여 中國의國內情勢如何에 不拘하고 그遂行에 邁進하려하고 잇는것을 看破한것과 六中全會 五全大會를 압두고 政府로서 對日方針을 確立하여두지안흐면 本問題로말미아마 現政府가 難局에 逢着할 念慮가잇기때문인데 蔣介石氏는 日本의今後態度如何를 非常히 念慮하고잇는 模樣이다 그러나 蔣介石氏가 果然如何한 程度까지 日本의態度에 今後 對抗할수잇슬는지 가장 注目되여잇는데 各方面의情報를 綜合하면

一、滿洲國承認은 아직全然不可能이다

二、排日 排日貨의取締 經濟提携等에關하여는 積極的으로 意思表示를할 模樣이다

三、赤化共同防衛問題에對하여는 主旨는如何든 實際問題로서는 크게研究할 餘地가잇다고하는 模樣인데 적어도 日本側에 中國의 領土主權尊重의確約을 要求할것이라고 한다 要컨대 日本側으로서는 그리큰 期待를 가지고잇지안는狀態이다

(寫眞은 蔣氏)

北中形勢더욱惡化微妙

商震氏의報告로 武力彈壓을命令

國民政府에서電報로

【南京二十六日發電通】河北省政府主席商震氏는 二十五日電報로서 國民政府에 香河事件의內容을 報告하야 『今回의事件은 奸人及 日本浪人이 背後에서 農民을 煽惑하야 縣의徵稅에 反抗케하야 紛擾를 惹起케한것으로 省政府는 軍을派遣하야 鎭壓하기로 決定하엿슴으로 一兩日中에 解決可能性이잇다』고 述하엿다 이에 對하야 國民政府는 直時 回訓을 發하야 商震氏의 措置를 稱揚하고 北中의事態拾收를爲하야 徹底的武力彈壓을 行하라는言을 嚴命하엿다

自治運動에對한 請、回訓要旨

【南京二十六日發聯合】河北省政府主席商震氏는 農民自治運動에 對하야 二十五日 行政院에 經過를 報告하고 武力彈壓決意를 闡明하엿다 報告要旨는 左와如하다

香河縣事件은 不過分子集團人의 策動에서 基因되는것이다 此等分子는 稅捐過度反對를 理由로 農民을 煽動하야 暴動誘致의 行動을 取하엿다 省政府에서는 現在軍隊를 派遣하야 鎭壓에 努力하고잇스나 早晩大軍을 出動식혀 武力彈壓을 斷行할方針이다

一方商震氏의 武力彈壓要請에 對하야 行政院은 二十六日午前回訓을 打電하야 日本當局의 意向打診을 命하엿다 行政院의回訓要旨는 左와如하다

武力彈壓은 原則的으로 是認하야 日本當局의 意向도 打診하야 不必要한 紛糾를 釀成치 안토록 善處하기를 바란다

北平市夜間에戒嚴令

【北平廿六日發電通】香河事件에 刺戟되여 河北省內各地에 民衆運動이 勃發될形勢는 漸次濃厚化하야 平津地方에 謠言이 盛히 流布되여잇슴으로 北平市當局은 事件의 發生防止에 萬全을期하기 爲하야 二十五日午後十時부터 夜間臨時戒嚴令을 發布하고 非常警戒를 開始하엿다

香河縣城內는 農民이完全占據報告

【北平二十五日發至急報】縣治監查員公署로부터 急派된 調查員의 報告에 依하면 香河縣城은 城門을 閉鎖하고 交通을 遮斷하야 城內는 農民에게 完全占據되여 秩序는 維持되고 잇는 模樣이다

日本側과折衝하는外

圓滿解決無策

自治의風潮北中에延蔓되야

形勢는더욱重大視!

【北平二十六日發電通】香河縣城은 河北省과 停戰區域의 境界線에잇고 또 事件은 內容이 자못複雜하기때문에 그解決은 자못困難하야 鎭壓兵을 進軍하기 不可能하다 오직 停戰協定締結精神에 基하야 日本側과 圓滿折衝을 圖할수밧게업슴으로 困惑을 極히하고잇다 如何든 日滿中三國關係의 重要地點에 獨立政權과가튼 自治體의 出現하는것은 第一理想인 民族統一을 實現한 南京政府에 不滿을 抱懷한 北方人民에게 至大한 影響을 與할것으로 萬若 이것이 一時解決된다고 하드라도 今後 此種의風潮는 全北中에 瀰漫하게 될터로 形勢는 去益 重大視되여잇다

香河縣城은常態回復

【北平廿六日發電通】農民自治의 香河縣에서는 二十六日早朝부터 武官亭及 新縣長安厚齋의 名義로 모든 城內商店開店을 命令하야 大略事件前과如한 狀態로 復歸되엿다 但 城門은 아즉도 구더閉鎖되여잇고 城內治安은 農民自治保安隊에依하야 維持되여잇다

三省聯絡會議

義和團議定書檢討

【東京電話聯合】河北農民自治運動의 動向에 關하여 外務省은 事態에 關心을가지고 此等情勢를 靜觀하기로 態度를 決定하고 若杉北平參事官에 詳報를 督促하는 一方 天津總領事官의 現地報告를 期待하고잇는데 二十五日 東亞局長室에 外務陸海軍의 聯絡會議를 開催하고 各關係情報를 綜合하야 愼重事態의 糾明에 努力하야 塘沽 義和團兩議定書의 細目에 亘하야 愼重協議한 다음 中央으로서의 萬全의方策樹立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進하엿다

中國側無誠意로

大連會議決定實現邁進

關東軍積極的으로工作

【新京廿六日發電通】去六月 北中事件勃發以來 五個月 日本軍은 當時聲明한바와如히 北中의安寧과 日滿中三國의親善 나아가서는 東洋平和의確立을 期하는 大局的見地에서 內政不干涉을 모토로 오직 南京政府의 誠意잇는 發動及 北中事件勃發의 禍根一掃에 關한 北中責任者의 忠實한 實行을 監視하여왓는데 中國側은 日本의誠意를 아직理解치못하고 日本의 公明正大한 大方針에 背馳되는바가 만코 一方北中事件後의 急迫된 問題로 北中赤化는 좌케으로 惡化되고잇는바 事態는 不幸히 軍으로서 再次의 積極的工作을 不得已하게 하엿다 卽 關東軍은 過般大連會議의 決定에基하야 左記事項의 實現에 邁進하게되엿다

一、外蒙古를 經由하야 實現되고잇는 蘇聯의 赤化工作에 對하야 日滿共同防衛策을 講究할

二、北中에잇서 依然 實施되고 잇는 國民黨政治의 排擊을 期할

三、南京政府로 하여금 排日運動을 根絶케하야 日中親善政策을 具體的으로 實現케할

八面鋒

◇制裁하면서 한편으로 和協하라하기는 體面上 안되는點을 發見헷든지 來月十四日까지 制裁發動을 延期。

◇자우면서 制裁안받겟다하기도 良心上 걸니는곳이잇는지、伊太利도 兵員의 一部를 撤收。

◇이러저럭하는동안에、英國은 選擧工作과 軍縮工作을 施行하고。

◇佛國은 伊國을 안고돌며 對獨防備陣을 든든히 싸코잇다。

◇森羅萬象이 冬眠準備를하는이때이나、國際萬象도 한잠재우는것이 그럴듯하나、

◇明春이되야 活氣發生하는때에는 또한판 구경거리가 벌어지라는가。

寫眞界의最高權威

世界的新發明金屬寫眞

世界的新發明 金屬寫眞

本社研究에依한世界的新發明品金屬寫眞은寫眞을特殊한化學的方法에依하야眞鍮版에彫刻한것으로左의三大特徵이有합니다。

◇三大特長
一、永久的●
二、價格低廉●
三、藝術的●

◎地方代理店募集◎
◎月收百圓
◎申込次第說明書進呈(要二錢切手同送)

◇工業相談部

京城府光化門通二一〇(光化門뻘딩)
合名會社 京城工研社
社長 米國工學博士 延禧專門講師 崔晃
電話光二四七一番 振替京城二四〇一六番

合名會社 京城工研社

朝鮮鐵工所
京城スプリング製作所
京城府中林洞239
電話本局 8 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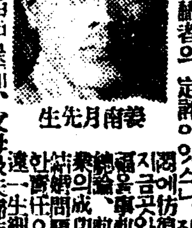
링゛ 네오지린
ネオヂリン
림질

二圓、三圓、五圓、十圓
京城本町四ノ一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兵庫縣細川、電話河七番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恩給
京城府校洞一六〇 鄭商會

金銀高價買入
金銀賣買合資會社
代表者 大盛守德
電話本局一三八〇番
京城南大門通一ノ九五(黃金町四街)

奇人神談의主人公
東洋唯一 觀相師
新運命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게



京城府昌信洞六八七 姜南月觀相所

新發賣
最廉價의高級品!
第四五二號
全四十五圓
最近한特約店에서試聽하시오

株式會社 日本蓄音器商會
蓄音器 コロムビア

사람의 핑게 하나님의 대답(속)

하나님은 자비하신이시니 그런고로 그가 나의 범죄한것을 들 덥허 두실줄 압내다

답『형벌바들자를 결단코 면하여 주지 안흐리라』(출애굽기三十四장七절)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듯지아니하엿스니 두려움이 너희게 림할때에 내가 비웃스리라』(잠언一장廿四、廿六)

나는 저 술주하는자와 사회상 악한들과 가튼 종류의 사람은 아닙내다

답『죄는 한사람으로말미암아 세상에 드러오고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왓나니 이와가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럿음은 모든사람이 죄를범하엿슴이라』(로마五〇十二)

나는 그래도 여간한 선행을 가젓스니 하나님께서 내야 구원하실터이지

답『누구던지 온 률법을 직히다가 하나이라도 범하면 모도 범한자가 되나니라』(야고보二〇十)

나는 교회를 위하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조력하엿스니 하나님께서 내야 후대하실터이지

답『그날에 여러사람들이 나다려 일으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귀를 쫏으며 주의 이름으로 여러가지 능한일을 행치아니하엿나이가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모지 아지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태 七〇二十二、二十三)

花辰恰似한 奇候와 이뒤에 닥칠 치위

비개인뒤에 蒙古高氣壓이 온다

目前時急한겨을準備

대체로 부드러운 가을에 좀복바 더보지못하는 특수한 대륙성기후에 시달리는 조선에서 금번 가을은 유달리 따뜻한날세가오래게속되드니 이십오일밤부터구준비조차 나려서 기온이올라가서 경성근처는 마치꽃시절의봄일긔와 방불케하얏다 경성측후소(京城測候所)의 말을드르면 이는이십오일아츰에 청도의서남방에잇든 저기압이 동북으로 움직이면서 발달하야이십륙일아츰에는 서조선만 해상에까지 온까닭이라고한다 이로인하야 만주(滿洲)일대는 비가오고 조선도남쪽에 군데군데흐린데가잇고는 대체로 비가오고잇다고한다 그러나 그우량은 매우적어서 이십륙일오전여섯시 현재로 신의주(新義州)의 삼십이밀리가제일만코 그다음이 평양(平壤)의 사밀리로 그밧게는 모다 매우미미하다고한다 저기압은 아프로 북조선으로지나갈모양인데 대체로 이십륙일석양까지는 전조선적으로 날세는 회복되여 계속하야 입기는 청청할터인데 그대신 이저기압이 물러간 뒤를니어 몽고(蒙古)방면의 고기압이 발달되여나올모양이여서 날세는 좀치워지리라고한다

◇봄철비숫한가을비◇ 今日街頭所見

置石妨害로 特急列車脫線

今日大邱院垈洞에서 乘客은無異狀

이십륙일오전아홉시사십이분 대구(大邱)발봉천(奉天)행 제칠렬차노조미호가 동오십일분 부산그점 백이십칠킬로의 원대동(院垈洞)네거리길목커-브에 다다랏슬때 갑자기 긔관차가 탈선되며 그대로 약한킬로를 진행하다가 정거되엿는데 요행승객엔 이상이업섯다 원인은 전긔네거리길목레일우에 어떤자가 주먹만한돌을 노핫기때문으로 목하 대구서(大邱署)에서 범인을 엄탐하는중 이까닭에 대구역보선구로부터 구원렬차가 급행해서 복구작업을하여 한시간이십륙분만인 오전열한시십칠분 경성으로향하여출발햇다

黃海忠南에서도 안티모니鑛發見

활자(活字)와 안료(顔料)또는군수(軍需)공업의 재료로 문화와 검(劍)의 두방면에 수요되는독안티모니-」광은 일본내지에서일년에 백만원이상의 수입을하고잇는바 이미수년전부터 조선에서도 충남천안(天安)평남의성천(成川)강원도의 화천(華川)등지에서 발견되야 총독부 에서는 『안티모니』의 자급자족을 도모하고저 탐광을 장려하여 왓든바 최근에는 다시황해도의 신계(新溪)와 천안(天安)에 새광구가 발견되엿슴으로 총독부에서는 더욱탐광을 장려하야조선내의『안티모니』광의발전을도모하게되엿다한다

咸興高普秘社事件 八名體刑、六名猶豫

廿六日咸興法院서言渡

【咸興支局電話】함흥고등보통학교생도 적색비밀결사(赤色秘結社)사건의 언도공판은 이십륙일 오전열시오십분부터 장정(長井)검사립회미테 죽석(竹石)재판장으로부터 다음과가튼 언도가잇섯는데 방청석에는 피고들의가족을 비롯하야 약륙칠십명의방청객이잇섯다

尹錫柱二年 李相寶二年 徐東源二年 洪鍾勳二年 朱文淳二年 崔鳳圭二年 高東文 一年 高昌勳二年 (以上八名六十日未決拘留通算)

金相勳一年六個月 尹祥錫二年 韓鶴鎭一年六個月 張國彦一年六個月 張成鎭一年六個月 李炳一 一年六個月 (以上六名四年間執行猶豫)

다고한다

麻雀黨檢擧

이십오일오후 열시쯤하야 부내이사동(仁寺洞) 일백구십칠번지 김복용(金福用)(■)외 여덟명은 전긔장소에서 마작도박을 하다가 종로경찰서원에게 모조리붓잡히여 방금취조를 밧는중인데 현장에서 압수된 장전이 일백오십원이나된다

十三週年記念마자 朝鮮少年軍再興

明日獎忠壇서記念式

지난십월오일로써 창립제 십삼주년을마즌 시내중학동(中學洞)일번지 조선소년군총본부(朝鮮少年軍總本部)에서는 이십칠일오전 열한시부터장충단(獎忠壇)공원에서 성대하게 긔념식과운동회를 거행한다고한다 이총본부에서는 특히그동안 다소침체한 형세에잇든 조선 소년운동을이번 긔념식을 긔회로하야 재흥시키려는 기도아래서 만반준비를 진행시키고잇스며 지방에서도 소년군단체가 만히참가하리라한다

또 이날의 성사를위하야 각방면의 물품기증도 답지하는중인데 그날책임위원은 아래와갓다고한다

施賞部=劉詰鎬 劉和文 周錦同 丁大善 召集部=鄭成根 記錄部=張明浩 競技部=咸順在 金昌洙 劉宥寧 判部=權英燮 吳鳳煥 方基南 準備部=金悌煥 金海順

十五歲少女가 情郞하고逃走

사내와 다라난 수양딸을 차저달라는수색원-부내이사동(仁寺洞)이십륙번지 문희철(文熙哲)의수양딸 조선권번견습기생 김월선(金月仙)(一五)은 지난이십오일밤에 그곤처에잇는 어떤리발관의 공깃(金)오와 함께어데로 도망갓스니 그들을 차저달라고 이십륙일 전긔문희철은 소관종로경찰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

軍用犬競技大會

【京南】제국군용견협회 조선지부(帝國軍用犬協會朝鮮支部)에서는 오는이십칠일오전 여덟시부터 룡산우편국 군용견훈련소(軍用犬訓練所)에서 군용견경기대회를 개최한다는데 관람은 무료라하며 일반애견가(愛犬家)들의 참석을 더욱 희망한다고한다

洪原暴風雨로 死亡者六名

浸水家屋百五十

【洪原支局電報】이십오일밤 자정부터 폭풍우가 쏘다저부러와서 전진(前津)항구바게나갓든 어선이만히 조난하야 익사자가여섯명 파손어선이 이십여척에그손해총액이 이만원가량에 달한다 또 읍내의침수가옥은 일백오십호에달하야 항구는 호곡소리에 떠퍼잇다 이로인하야 각학교도 임시로휴학중이다 우량은 륙십삼밀리에달하엿다

諭旨와退學에 警察意見을先探

廿三日專門校學生監督會서協議

注目되는今後의趨移

지난이십삼일 오전열시반부터 경성제대(城大)회의실에서 대학예과(豫科)를 비롯하야 시내각전문학교 학생주사 학생감독회(親睦會)주사 각경찰서 고등계주임등이 모히어 학생의 풍긔와사상취체에 대한 협의를하엿다한다 이회의의 특색은 학생감만의회의가아니라 특히시내각서의 고등계주임들의 참가를 본것인데 최근 학생의풍긔가 문란하여감에비추어 각학교당국과 경찰은 련락을 긴밀히하야 학생의풍긔취체를 강화하는동시에 학생층에 침입하는적화사상의 단속에대하야도경찰과 학교의련락을 긴밀히하야 학생의퇴학처분할때와 유지(諭旨)퇴학을식힐때라도 미리 학교당국자는 경찰당국의 의견을 드러 결정하게 협의하엿다한다 그리하야 그후학교당국의 학생감독에는 경찰권력이 매우긴밀히 련결되야 학생의풍긔와사상취체에대한 학교당국의처치에는 한편으로보면 학교의학생주사나학생감의 경찰화로 볼수잇는데 이것이 과연자유의학원에는 어떠한 반향을줄는지매우주목된다

天氣豫報

北西風、晴一時曇

昨朝 附近에잇든 低氣壓은 漸次 北東으로 進行하야 今朝에는 兩滿國境에 七四六耗를 나타내이고 北朝鮮을通過하려한다 또 低氣壓이 九州南西海上과 名瀨부근에잇다 高氣壓은오호쓰크海부근에 七七○耗를 示하고잇서 朝鮮南方海面은 大槪 降雨가잇고 黃海北部沿岸은 바람이强하고 開城地方은 降雨가잇슬模樣이다

昨日最高 一九○ 同最低 一二八 今日正午 一五七

綜合競技大會第五日

中等蹴球 凱歌는徽文陣頭에

白熱된普專對延專蹴球決勝

조선체육회주최 제십륙회전조선 종합경기대회제오일은 이십륙일 오전부터경성운동장에서열리엇다 지난사일간의 격렬한접전을대하면서 마즈막최후의왕좌를다투는 결승전에림한 각팀의투장으로 벽두부터 극도로 긴장한가운데 중학단축구결승전으로부터 막을열엇다 이날은 작야에내린 애꾸진 비로인하야 그라운드는 진흙투성이(泥濘化)가되여 극히 불호한컨디슌을 무릅쓰고 휘문고보대숭실중학(徽文對崇實)량군의장렬한 오바전이 전개되여 전반전(前半戰)에잇서 량군은점이업시 서로공방전(攻防戰)으로 맛친다음에 후반전(後半戰)에드러가 더욱전세는 맹렬를극하다가 휘문군중한점의골을어더 결국 일대령으로우승하니 원래의 숭실군은 명년을기약하고 물러섯다

◇決勝戰

徽文1 崇實0 (前0……0、後1……0)

【中學部蹴球決勝戰】昨年의優勝팀崇實學校 對 徽文高普戰은 二十六日 午後零時三十三分부터 玄正柱氏審判아래 崇實키어프로 열리엇다 昨夜부터나리는비로因하야 球場은진흙투성이로되여 極히不良한『컨디슌』아래 激烈한 接戰이 展開되엿다 文軍戰初부터 攻勢에나아가 崇實陣前에肉迫하야 連二次好機를 마젓스나 凡蹴으로無爲 이에 崇實軍陣지안코 드니 二十九分徽文左翼蹴을利하야 網好한『슛』를지엇스나 崇實GK의防禦로得點을이루지못하고 前半은 兩軍 得點업시마치다 後半에드러가 崇實의 攻擊熾烈하야 連四次의 猛蹴을 利하며서도 徽文GK金容武의 防禦로崇實退却 二十五分에 徽文CF의패스를LI金洪東바더 슛하야 골이되니 崇實致命的一點을 빼앗기자 毅然히逆襲하야 三十分에崇實自由蹴을利하야 골前十五碼地點에서킥하야 好機를지엇스나 『어프싸이드』로골인선後 鐵壁的으로 徽文後陣을 攪亂시킬뿐으로 得點치못하야 結局一對零의怨恨스러운一點差로 遠來의 崇實軍惜敗하엿다 이로서 今年度中等蹴球의 覇權을 오랫만에 徽文軍이 掌握하엿다

【徽文】

李圭男	G	尹泰龍	計	後 前
金洪東	R	金弘變	得點	0 0 0
金榮澤	L	崔永	球門蹴	5 0 5
張鍾英	B	王昌鎬	自由蹴	0 6 6
李鴻烈	C	宋熙植		2 1 3
黃容秀	L	池昌道		
李燦一	R	朴永浩		
朴英傑	R	柳致後		
金秉式	W	姜道一		
黃義老	I	車熙		
金容武	F	金淳浩		

【崇實】 得點 0 1 1 / 球門蹴 4 5 9 / 自由蹴 0 2 2 【徽文】

延專·普專

普專對延專蹴球決勝戰은 二十六日午後二時十九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徐丙義氏主審下에 延專先蹴으로 開始되바 前半戰에잇서 十分에 普專軍自由蹴을 利하야 CH金容植君이 슛하야 貴重한 一點을 어든채 前半戰을 맛치엇다 그리고 後半戰에 드러가 延專군한點을回復하야 一對一同點되엿다 午後三時十五分까지

【普專】

文二	G	鄭中錫	計	後 前
吳在善	R	金明鎬	得點	1 0 1
高鴻建	L	金成順	球門蹴	0 0 0
裵宗覺	B	金寅升	自由蹴	0 0 0
朴孝禧	C	車惠德		0 0 0
金炳植	L	丁景漢		
金容漢	R	李海次		
李鍾浩	R	李杏錫		
李永	W	鄭龍遠		
洪在稹	I	洪杯		
朴相再	F	金忠		

【延專】 得點 1 0 1 / 球門蹴 0 0 0 / 自由蹴 0 0 0

竊盜選手安永一 懲役七年을言渡

今日京城法院서

일년동안에 경성, 평양, 진남포, 원산, 함흥등 각처로 도라다니면서 오십이회에 금반지백금시게등 귀금속 칠십이개 (가격일만오백원)를 도적하야 포로상점까지 버려노코 버젓한 생활을하고잇다가 피경 경찰서에 붓잡힌 특수상습절도안영일(安永一)(三七)은 이십륙일오전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삼강(杉江)판사로부터징역칠년의 판결을바덧다

京城、新義州間 本報空輸飛行延期

본보 공중수송 시험비행의제이 『코-스』 경성、신의주간비행은이십오일에 결행하려든것이 천후관계로 부득이 이십륙일순연(順延)되얏섯는데 이십륙일도 역시천후가 회복되지 안헛슴으로 다시 천후회복될때까지연긔하얏습니다

寶物古蹟保存會 第二回指定名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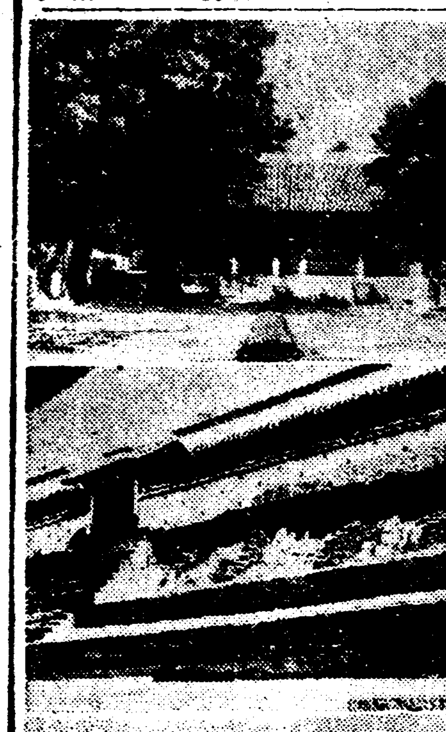
今回決定만百五十八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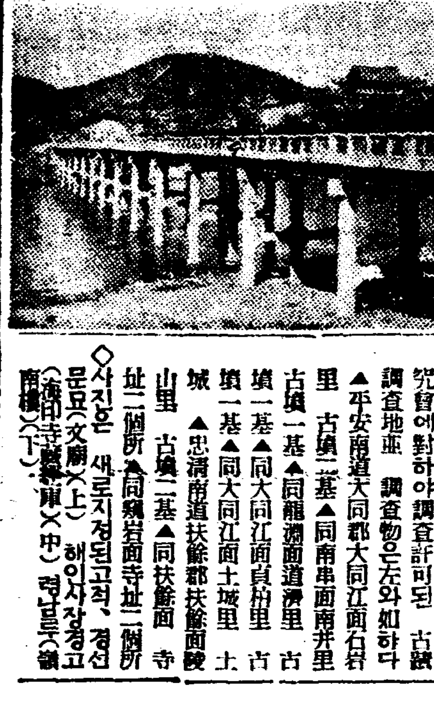
구월이십삼일에 총독부제일회의실에서 금정전(今井田)정무총감의 통제하에 열린 보물고적명승천연긔념물보존회(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제이회총회에서 각위원이 신중히 심의한결과 다음과가티 결의하는동시에 일백오십팔건을 지정하엿다한다

第一、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指定에關한件

保存令에依하야 寶物古蹟又는 名勝天然記念物로서 左記와가티 計百五十八件을 指定하엿다

△寶物(六十五件) ▲安州百祥樓 ▲京城文廟 ▲京城東廟 ▲南漢山城[illegible] ▲江陵客舍門 ▲成川東明館 ▲安邊[illegible] ▲開心寺大雄殿 ▲修德寺大雄殿 ▲寶林寺大雄殿 ▲道岬寺解脫門 ▲龍門寺大藏殿 ▲觀龍寺藥師殿 ▲通道寺大雄殿 ▲海印寺藏經板殿 ▲深源寺大雄殿 ▲槐山外沙里浮屠 ▲龍頭寺鐵幢竿 ▲公州本町石槽 ▲公州旭町幢竿支柱 ▲公州旭町石槽 ▲鷰谷寺三層石塔 ▲鷰谷寺東浮屠 ▲鷰谷寺玄覺禪師塔碑 ▲鷰谷寺東浮屠碑 ▲鷰谷寺西浮屠 ▲鷰谷寺北浮屠 ▲華嚴寺東五層石塔 ▲華嚴寺西五層石塔 ▲寶林寺三層石塔及石燈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寶林寺東浮屠 ▲寶林寺西浮屠 ▲舍利石塔 ▲安東柳氏文書 ▲鳳巖寺三層石塔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 ▲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碑 ▲雙峰寺眞鑑禪師大空塔碑 ▲禪林寺五層石塔 ▲慈惠寺九層石塔 ▲慈惠寺石燈 ▲月精寺八角九層石塔 ▲金銅菩薩立像 ▲鐵造毘盧遮那佛座像 ▲金銅釋迦如來立像 ▲觀音寺金銅觀世音菩薩座像 ▲木彫釋迦如來三尊小佛龕 ▲寶林寺鐵造毘盧遮那佛座像 ▲慶州南山彌勒谷石佛座像 ▲浮石寺無量壽殿塑造金銅押釋迦如來座像 ▲防禦山磨崖佛 ▲月精寺石造菩薩座像 ▲浮石寺祖師堂壁畫 ▲白銅戈 ▲金銅把白銅劍 ▲神仙草花文銅鏡 ▲龍龕手鏡卷一 ▲龍龕手鏡第三卷第四卷 ▲經帙 ▲五臺山上院寺 ▲重創勸善文 ▲高麗高宗御書





△古蹟(四十六件)

▲京城城郭 ▲京城社稷壇 ▲老人亭 ▲獨立門 ▲迎恩門柱礎 ▲扶餘風納里土城 ▲公山城 ▲扶餘靑馬山城 ▲公州宋山里古墳群 ▲扶餘陵山里古墳群 ▲慶州月城 ▲慶州南山城 ▲慶州富山城 ▲慶州西南古墳 ▲新羅眞德王陵 ▲新羅武烈王陵 ▲新羅景德王陵 ▲新羅興德王陵 ▲新羅憲德王陵 ▲新羅興德王陵 ▲傳金庾信墓 ▲慶州九政里方形墳 ▲皇南里古墳群 ▲皇吾里古墳群 ▲仁旺里古墳群 ▲路東里古墳群 ▲路西里古墳群 ▲慶州臨海殿址 ▲慶州興輪寺址 ▲慶州感恩寺址 ▲鷄林 ▲蔚山鶴台山日本城 ▲馬山日本城 ▲鳳山唐土城 ▲帶方太守張撫夷墓 ▲大城山城 ▲傳安鶴宮址 ▲大華宮址 龍岡於乙洞土城 ▲泰川籠吾里山城 ▲洪原史庫 ▲洪原大鷄峰山城 ▲洪原城嶺石城 ▲洪原富民洞古墳群 ▲北靑靑海土城

△古蹟及名勝(二件)

▲平壤牡丹峯 ▲慶州佛國寺

△名勝及天然記念物(一件)

▲蝦窟

△天然記念物(四十四件)

▲唐津鶴 ▲求禮鷺香鹿 ▲海州鶴 ▲潭陽金城面槐木 ▲求禮華嚴寺彼岸櫻 ▲平壤山手町化石林 ▲平壤牡丹台化石林 ▲延安白川鶴 ▲莞島郡禮松里常綠樹林 ▲漢拏山灌木帶及草本帶 ▲鬱陵島石門洞野生桐 ▲漢拏山濟州島左面樟 ▲平壤南山町化石林 ▲濟州島八色鳥 濟州島赤腹 ▲濟州島大蝦其他

第二、古蹟의保存에關하야 禁止及制限할件

樂浪帶方郡時代의 郡縣治址인 鳳山唐土城及帶方太守張撫夷墓의關係地域에서는 爾後其所有如何에不拘하고 耕作新採土又는 此에準하는行爲를絕對禁止하게되엇다

第三、寶物의修理工事에關한件

寶物로서 指定된 古建物로서 昭和十年度及同十一年度中修理工事를할것中 主要한것은左와如하다

▲水原蒼龍門(東門)及附屬城壁 ▲平壤大同門 平壤普通門 ▲無爲寺極樂殿 ▲淸平寺極樂殿 ▲德山守寺里石層石塔 ▲昌林寺三層石塔 ▲獅子頻迅寺石塔 ▲安東部洞五層塼塔 ▲深源寺普光殿

第四、遺蹟發掘調査의 許可에關한件

昭和十年度中朝鮮古蹟研究會에對하야調査許可된 古蹟調査地點 調査物은左와如하다

▲平安南道大同郡大同江面石巖里 古墳一基 ▲同龍淵面道濟里 古墳一基 ▲同南串面南井里 古墳一基 ▲同大同江面貞柏里 古墳一基 ▲同大同江面土城里 土城 ▲忠淸南道扶餘郡扶餘面陵山里 古墳二基 ▲同扶餘面 寺址二個所 ▲同窺岩面寺址二個所

◇사진은 새로지정된고적、경선문묘(文廟)(上) 해인사장경고(海印寺藏經庫)(中) 령남루(嶺南樓)(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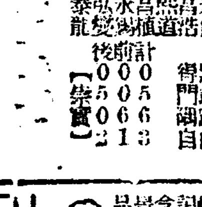
ブラザーミシン特約店募集

無音輕快 堅牢優美

型錄申込 次第進呈

フラザーミシン總代理店 コントロールミシン直輸入 シンガー中古ミシン卸商 部分品カタン絲卸商

日米ミシン商會 大邱本町一丁目 電話一五○六番


特許新案 動力用 脫穀機 刻打農機具 毛切村式新最進步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石橋農機製作所 電話堀川三○四三番

Columbia 不朽! 이傑作盤!! 아득한 千里길 (四○六二一) 蔡奎燁

優美館 世界는動한다 鐵의爪後篇全發聲版 乞期待 港まつり 主演 藤間林太郎 佐久間妙子 伴淳三郎 大岡怪童 次週封切

第一劇場 十月二十五日낮부터三日間特別興行 密林의王者 超特作巨大篇 現代劇 妖麗

浪花館 二十四日封切 松竹映畫 全鮮封切 拳銃의制裁 國定忠次 大空의地獄 名物三人男 戀日記

頭痛에 ノーシン (노-신) 배는帆船 울달고 바람을 솟는다 頭痛은 ノーシン 에맥겨라 三十錢 五十錢 一圓 어느藥店에나 잇습니다

네오톤토닉 健康을追求함에는 世界的權威 네오톤토닉으로 健康에 柳韓洋行

保健은 蛔虫驅除부터 小兒健康의大敵蛔虫은腹中에寄生하야榮養分을奪取하야發育을沮害하며運動不活潑腦力減退가아니라延하야는生命에까지影響을주며또는何時侵入되는지모름으로每月蛔虫驅除日을定하고服用케함이必要합니다

蛔虫藥은四大特長을가진마구닌을먹이시요

1、마구닌은쓴도니과 가튼副作用이絕無

2、마구닌은下劑併用이不必要

3、마구닌은한도니가티排虫時不快感이업시不知不識間에驅虫됨

4、마구닌은排虫率이優秀함

마구닌錠 마구닌제리

京城西小門町 京城友吉京城支店

마구닌錠 마구닌제리 回虫驅除藥

쉬운듯해도섭지안한 체온계재는법

체온계(體溫計)에는 일분계(一分計)와 오분계(五分計)가잇습니다 몬저 그체온계를 신용할려면 일분계인때는일분 오분계인때는오분동안을 품에품엇다가 도수가 얼마나올나간것을 자세히 본후 올나간도수그대로 도로품에 너허서 한번더재어보는것이 필요한니다

이러케두번재하는것은먼저재엿든도수가 틀린것든가 마젓든가를 볼려는것입니다 일분계는 일분간을재고 오분계는 한사오분재인후 끄내보아서 먼저재인도수와꼭가트면 이것이정확한 온도라고보와도조홉니다 이런때에 만약 먼저재엿든도수보다 도수가올나갓슬때는 한번더재어보는것이 필요합니다

[illegible] 어린애기를재일때는 겨드랑보담 다리사히에넛는것이편리합니다 체온계의 수은끗을다리사히에집어넛후 양편정갱이를맛부치고와가늘려줍니다 물론 말을듯는어린애는큰애기는 어른과가티 겨드랑에넛는것이간단합니다 수은끗이겨드랑한가운데에 데이도록하고 팔을꼭눌러두어야합니다 만약체온계끗이겨드랑끗그로 나오거나하면아니되니 주의가필요할뿐만아니라 더구나 여윈사람은 수은끗이 겨드랑에잘파무치지안

어떠튼지 체온계끗이 피부에 딱끼워저야 온도를잘재일수잇스니까요 그리고 겨드랑에땀이나거나 그부근이찰때는 명확한온도를알기어렵게되니까 먼저땀을 말짱닥거버린후 체온계를 넛는것이조흡니다 또어린애기의 체온을재일때 터미헤다가 재는사람도잇스나 이것은 정확하지못한때가만습니다 또 체온계를재엇다가 다시 또넣코려고 할때 수은이 나려가도록흔들지말고잠간한데다 그대로두엇다가 재는것이 정식입니다

家庭

때안타서 조타지만 털것에는 탈이만타

유독 까쓰를닷는대로 빨아드리는폐 뒤ㅅ간냄새는 대금물

겨울이 오면 털것의 세상이 됩니다。양복이나 외투아 본래부터 말할ㅅ것이 업거니와 양복이니 속옷까지도 털을 취하게 됩니다。세상에서는 불경긔(不景氣)를 떠들건만 사치하는 풍속만은 작구작구느나 봐요。멧해전만 해도 갑비싼 털것을 입고나서는 랑반네가 드뭇더니 요지음으로는 괴도개도 다 털옷 털양말에 뽐내고 다니니까요。그러나 털옷을 어떠케 입으면 잘 입고 또 어떠케 입으면 낫분지 아시는 분이 과연 멧분이나 됩니까? 털옷을 조하하시는 분에게 거긔 대한 이약이를멧 가지올리려합니다。

대체 털것은 무명것이나 비단것보담 더럼을 덜 타는 것이 사실입니다。시험삼아서 한편은 털로 하고 한편은 무명으로 해서

속옷을입거나

또는 한짝 발에는 털양말을 신ㅅ고 한짝발에는 비단양말을 신어 보십시요 보통눈으로 보기에도 털편이 훨씬 깨끗해잇는 것을 잘 알ㅅ수 잇스리다 그 것을 벗어서 증류수(蒸溜水)에다가각 빨아 가지고 거긔 든 지방이나 염분(鹽分)을 비교해 본다면 털편이 적어서 때가 덜무덧다는것을 아조 과학적으로 증명케 되리다。그런데 털양말미레 비단양말이나무명양말을 바처신을때는 바처신은 양말이 거든로 신은때보담도 더 더러워집니다 그로보아서 털것은 제자신이때가 잘안뭇는대신 우의ㅅ것이나 아래ㅅ것으로때를

넘기어버리는

성질이 잇다는 것을 잘알수잇습니다。그러니까 털옷에는 무명것이나 비단것을 바처 입는 것이 조흡니다。그래야 훨씬더 더럼을 덜 타게됩니다

×

털것은 다른것보담 까스를 빨어 드리는 특질이 잇습니다。시험삼아서 털옷을 입고서 뒷간에를 갓다가 와 보십시요。보통코로 맛기에도 냄새유 가 난히 더 배어 잇는 것을 잘 알ㅅ수 잇스리다。동일한 분량의 암모니아를 노코 동일한 널비의 털헝겁과 딴헝겁을 그우에 걸어서 동일한 시간이 지난뒤 증류수로 빨아가지고 「네스렐스」씨의 시험약을 타 본다면 털편은 아조

누러케 되는데

딴편은 조금 노리끄레하게 되야 암모니아가 만히 배어 잇다는 것을 아조 과학적으로 증명할ㅅ수 잇스리다。털옷을 입고서 까스가 나는데 가까이 가거나 오래 잇서서는 재미 업습니다。그 까스가 배기도 만히 배러니와 빠지기도 좀처럼 잘안 빠지는 것입니다。그러니까 털옷으로서는 변소의 출입부터 주의해야 될ㅅ것이 아닙니까? 소위 뒷간냄새가 오래 가서야 자긔도 그러코 남도 그러코 오작 불유쾌스러운 일이오니까?

×

털것이 더럼을 안탄다고 그저 그대로 입어서는 털이 부서지고

몬지가싸히어

못 쓰게될것이라 입고 나갓다가 와서는반드시 솔질을 해야 됩니다。그래야 더정하기도하고 수도합니다。

家庭醫學

애를못낫소

問 저는 이십칠세녀자인대칠년전임신때 국부가붓고 반신불수가되엿기로 모약국 의사에게 진찰하니 신경쇠약이라고 하야 치료하얏더니 완치되엿습니다그러나 해산후로 극도로 쇠약하여지고 또한 가정불화로인하야 극도로 비관이만흔데 그때이면 정신이 업서지고 얼굴이 창백하야 지더니 일년이 지난후부터는 조금낫습니다 그후로부터는 지금까지 잉태치 못합니다 월경은 매달고르고 그러치안흔때도 잇습니다 경도비슨보통입니다 어느병원이든지 진찰할수잇습닛까 수술을 하여야되겟습닛까 수술을하랴면 병원에 혼저가도조흐며 입사는 얼마나걸이겟습닛까 선생님친절히 가라처주십시요(一女性)

答 전에임신이 반신불수가되고 국부가부엇다하며 신경쇠약이라고 하며 치료하고 완치되얏다하니 다행입니다 그때 그병은 신경쇠약이란것보다 한편 정맥염(靜脈炎)이엿슬것입니다 다행히 조흔경과가되엿기로 나핫슬것입니다 그후 태산치못한다하오니 아마자궁(子宮)의 위치가 조치못한관계이겟지요 큰병원이든지적은병원을 불고하시고 신용잇는부인과 전문의사에게 진찰하여보십시요 혼자가시는것보담도 수술의필요가잇스면 집안사람을데리고가심이편리합니다시일은진찰후알게될것입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다리에한증이나오

問 금년오십오세 된남자인대 약오년전에무단히 왼편다리에한증(寒症)이생기여 녀름에는덜하나 겨울에는 아조심합니다 심할때에는 행보하기어렵도록 관절이저리고 아픔니다 원긔난청년시부터조치못한니다 병명과치료방법을가라처주십시요 (月井里讀者)

答 당신에말삼한증세로만으는병인지생각키 곤란합니다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에도 그런수가잇고 당뇨증(糖尿症)혈관신경염(血管神經炎)뇌매독(腦梅毒)등에도 그런수가 잇습니다。혈액소변등을 검사하고 혈압을 칙정하야보시게하십시요 그리하기전에는 알기어렵습니다 치료법도그후에야 말삼할수잇겟지요 한번병원에가서 진찰을바다보시고문의함이조켓습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朴 秉來)

二十六日(土)

◇午後六時 合唱 中央保育學校生徒 指揮 洪盛裕
◇同六時二五分 趣味講話 落書의心理 李晶燮
◇同七時三〇分 講話 在滿朝鮮人의農家經濟와生活狀態(二) 鮮于全
◇同八時 伽倻琴散調와倂唱 沈相健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〇分 映畵이야기 라보-엠
◇同九時 歌曲 洋琴 大笒 杖鼓 成東鎬 金花順 郭在香 金相淳 金永根 金一宇

二十七日(日)

◇午後〇時五〇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泰平 二、唱劇調 沈淸歌 金素姬 鼓手 池龍九
◇同一時三〇分(東) 實況 東京大學對明治大學蹴球리-그戰 …明治神宮外苑球場으로부터
◇同六時 하-모니카合奏 一、바가룬드의노래 二、井上小夜曲 三、雙頭鷲旗下行進曲 四、메리-위도- 五、부라질行進曲 아르떼·하-모니카·밴드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座
◇同七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喜劇「우리아버지」一幕 (配役) 金첨지……金海雲 永祚(그의아들)……吉七水 桂順(딸)……金蘭草 朴心淸(직공)……李錦星 演出 放送劇新人會 效果 李如水 效果班
◇同八時一〇分 音律 冥山會 洋琴 金景元 奚琴 金周鏞 短簫 金明洙
◇同八時三五分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新遊歌 三、방아타령 四、양산도 五、靑春歌 細笛 高載德 玄山玉
◇同九時 合唱과獨唱 一、合唱 致賀하세 二、二重唱…(趙錦子、徐守俊) 종달새…멘델스존作曲 三、獨唱…(趙錦子) 맥시코夜曲…立淸明作曲 四、合唱 王의王…허-버-트作曲 五、獨唱…(徐守俊)도라오라소렌토로 六、合唱 自然의노래 安洞敎會聖歌團 伴奏 安로스 指揮 安大善

二十八日(月)

◇午前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法
◇午後三時一五分 趣味講座 世界風俗巡禮(一) 金岸基
◇同六時(東) 管絃樂 一、行進曲 들과森林을넘어서 아이렌벨그作曲 二、귀여운妖術쟁이 同 三、부-아人의行進 슈라이후·활드作曲 四、大演習…福田宗吉編曲 東京오-케스트라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同七時三〇分 記念講話 한글날記念 李克魯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調 沈淸歌 劉秋成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全水南 伴奏 DK管絃團
◇同九時 古談 겁도령 車靑吾
【追信】十月二十七日午後〇·〇五 唱劇調는 다음과가티 變更함 唱劇調 一、短歌 天下泰平 二、唱劇調 沈淸歌 金素姬 鼓手 池龍九

聖畵【13】

李孝石作 安夕影畵

그밤과 이밤과는 퍽도다르다 바다에서 동대에서 돌아오는밤 한결가티타올으는 열정의불꽃은 도저히 물바 업섯다。그 밤에 시작된 열정은 이밤에 명백히 사라나 끔쩍의세력으로 불붓는 것이엿다。타는몸을 엇저는수업서 나는 잠자리를나려나 안닌때 목욕실로 나려갓다。그러나 뜨거운온수는 도리혀 몸을더럽힐지언정 마음을 식히지는 못하얏다。바로 창밧기슭에 는한포기의 느릅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의 아람도리고목이웃어저잇듯이나 어두운창을 칙칙한검은그림자로 압박하고잇다。허물업는그 고목까지도 깨끗하게 나의답답한 마음을 뒤덥는 결과밧게는 되지안엇다 이웃간 녀관에서는 이역 아닌밤중에 목욕하는 사람이 잇는눈치엿다。그역 잠안오는 사람일에 틀님업다。유례나아닐까 생각하며고요히 철벅어리는 물소리를들으면서 나는 욕실을나가 잠옷을걸첫다。

일단 방으로돌아갓스나 마치 유령에게나 홀니운것가티 발은 허둥허둥 되돌아 정신업시 엽방으로 향하얏다。아무러케되거나 마즈막결단을내자는 심판이엿는지모른다。

그러나 유례는방에업섯다。유례대신에 텅비인방에서 낡사케 나는무엇을보앗든가。유례의존재를 대변하는듯도한 한장의편지가 책상우에서 나의시선을끌엇다。넓은 책상우에 꽉한장노힌 흰봉투의 옷독한편지가。

달녀들어 그편지를 집은것과 멀니떠러저잇는건수에게로보내는 유례의편지임을알고 순간에 그것을 꾸깃꾸깃꾸겨 손아구에훔처진것은 삽시간의 거의 미치광이의거동가티 황망한것이엿다 편지를 다시펴서 떨니는손으로 죽죽찌저 내용이사라저버린 의미업는조히조각을 뭉구려쥐엇슬때 복도에 발소리가나며 유례가 들어왓다。

녀탕에서 목욕하든 사람은역시 유례엿다。잠옷의앞을 되구말구 두손으로 염여쥐고 수건을 억개에걸치고 들어오는 유례를향하야 나는 닥치는대로찌저진편지의 뭉치를 뿌렷다。유례는 영문을몰나 그자리에주춤 섯다。

확실히 바른정신을일흔 착란된 꿈속의 거동이엿다。니어나는 봄가티 유례에게 달녀들어 부서저라 그의몸을안고 얼굴을 차저다。유례는 순간에 모든것을 리해한것이엿다。구지 발버동치며 나의몸을 밀처버리지는 안엇다。칙칙하게 입술을 허락하엿다 나는 욕심쟁이가되어 언제까지든지 얼굴을 때라고하지 안엇다。입술은 숫는피가되어 더워갓다。

나는 이밤가티 건수에게 질투를 늣긴적은업다。불붓는 게열 용솟음치는 미움—원시인이던지는 창살과도가튼 날카라운감정이 건수를 쏘앗다。그우서운질투로 말미암아 나는 비로소 내가 유례를 사랑하고잇슴을 깨달엇다。오래동안 유례에게로 기우러 멧틀든 갈피갈피의 감정—그것은 모다사랑의 감정이엿든것이다。작구한 마음의방황은 그 사랑의 확증을 어드라고싸운 시험과정임을 알수잇섯다。실로 오래간만의 발견이엿다。그러나 그러한발견도 그자리에 무슨결과를 가저올수잇섯든가。아무열매도 맺출수는업섯다。때가는젓고 모든 형편이 너무도 뒤틀녀진것이다

이윽고 유례는 얼굴을들며 나의몸을 밀첫다。무엇을 더요구할수잇섯든가。그이상 더 사랑의증거를주고 사랑의 표시를 때앗을수잇섯든가。그의몸을 놋치지안으랴고 벅서는 나의팔을 울니치고 유례는 방가온대 주저안즈며 팔로 얼굴을 가리워버렷다。

「너 괴롭게하지마세요。제처지를 생각해 주세요」

금방 울듯한목소리엿다。

더 손을 댈수도 업서 나는 산란한 정신을 부둥켜안고 방을 뛰여나가 뜰에나려섯다。허둥지둥 끌작을나려가 개울가 돌방헤섯다。방에도라가지못할운명을 잘아는 나는 어두운밤 돌우에서 밤을새울수밧게는업섯다

긴 꿈이라도 꾼것갓다。엇지되여 그 개울가에섯스며 그전에는 무슨일이닐어낫든지가 머리속에 깜앗고 아득하다。담금 그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는 갈피갈피의착각이 마음속을 구름가티휘저어노앗다……。

어느때나되엿든지 나는 문득 등뒤에 우룽소리를 들은듯하야 돌아섯다。어둠속에 유례가서서 늣기고잇는것이엿다。나는 가까히가서억개에손을엇저다

『알고보니 때가너무느젓서요。달을보러나왓슬젠 이미 새벽이 가까워구료。좀더일죽이 마음의 의향을 좃찰엇든들——。』

짜장 새벽이 가까워든지 밤긔운이몸에차다。

기막와보동

金相旭作畵

J-42

天下一品

キッコーウリー醬油
깃고유간장

十六立樽一樽又는 八立一罐二罐買上時마다
ベルベット石鹼 三個入 一函
빠짐업시進呈

宮內省御用達 野田醬油株式會社

キッコーマン醬油
깃고만간장
大景品附賣出し中

グンプ 겐부
マルセール 말세루
石鹼 固型 粉末
빗나는太陽도겐부가조탑니다。
極小量으로때는빠진다!
D.4
京都市七條千本南
第一工業製藥株式會社
京都·大阪·名古屋·各地

オセロ 오세로
精力回復 元氣百倍
굉장한賣買 훌륭한效力
¥1.20 ¥3.00 ¥3.50 ¥5.00
各地藥店에잇슴

● 天下의料理業諸位여!
惡醉한손님에게 ノーシン 노-신을 ●

當る廿五日から特別興行(四日間) 晝夜三回(晝間連續入替なし)
大衆奉仕 階下席 廿錢均一

新興キネマ超發聲現代劇 原作 小島政二郎 大阪朝日新聞連載 監督 村田實 オール・サウンド
花咲く樹 (廿五日 廿六日)
前篇なみ子の卷 市川春代 主演 小杉勇·島耕二·鈴木澄子·志賀暁子 助演

獨乙ウファ超特作日本版 監督 ラインホルト・シュンツェル
サウイリイ・フリッチ レナテー・ミュラー主演
カイロの結婚

新興キネマ超發聲現代劇 原作 小島政二郎 大阪朝日新聞連載 監督 村田實 オールサウンド
花咲く樹 (廿七日 廿八日)
後篇エマ子の卷 志賀暁子 主演 市川春代·小杉勇·鈴木澄子·島耕二 助演

『御願ひ』 『花咲く樹』前後篇の御觀覽を二十五日と廿六日の二日間と廿七日と廿八日の二日間上映致します

永樂町 電本局二
中央館

江都遊記……(三)

甲串의 語義

雲山 李殷相

海上을 지나오는동안 時間은 무어時間에 不過하지만, 언제나 重要한 생각을 못버리는 나그네에게는 아깝고, 알뜰하고, 곱고, 느꺼워, 그러케도 厭薄한 時間이잇습니다. 江華島! 三百里의

(周)圍가 제굿뒤는셩이어서 五大島中에 가장發小한 것이라고는 할지언정 三國은 黃海로서 實로 그要衝이되고, 一面은 京江을끼어 또한 그咽喉가되니, 天成으로 險絶한곳이라 그로因하야 演出된歷史를 前朝에서보든것이며, 海往을 向하야

선 여기곳 國家의 門戶이엇이라 그로因하야 이루어진歷史를 近代에서 보는것입니다. 麗代로부터 李朝에 亘하야 朝鮮民族의 發展史上에 重大한關係를가진 史實들이 거이 이海上과島中을 舞臺로하지 안흔것이 업섯다고도 하려니와 國運의 興亡이 儼然하야 民族勢力의 消長으로 쓰러지자 눈물지다도 흘아서 그『유모어』에 웃지안흘수업고 (虛)無하야 버리고시프면 서 도리어 嚴然한現實을 과 맛부처 보고도십흔 온갓心

색을 맛보는것이 여가 이海上의 情趣를 알것습니다. 어가러 무겁고도 괴로운 생각에 잠긴채로 江華島라 甲串에 배를매이니 때는 거이 夕陽에 가깝습니다. 甲串! 江華의 가장 오랜옛이름을 자취를 호올로 지니고잇는 곳입니다.

(江)華는 本是 高句麗의 穴口郡이오 新羅景德王때에 이르러 海口郡이라 改稱하엿다가 高麗高宗때에 이곳으로 遷都한일이 잇섯던 까닭에 江都라 부르게되엿고 이外에 沁州란 別稱도 잇습니다마는 가장먼저 이곳을 부르던 옛조선말은 (江)는 대로『甲比古次』(卽가비고지)엿던것입니다. 다만『갑고지』라 적엇고 지금은 甲串이라 적을뿐, 甲比古次나 甲串이 꼭가튼말임은 再言할것이 업습니다.

그런데 이『고지』란말이 串의 訓으로 쓰임이야 毋論이지오마는『고지』란 말은 元來『口』의 (口)이란뜻에 틀림이 업습니다 어 입(口)의 바다속으로 쑥 내밀어 地形의 穴口니 海口니 하는口라『고지』라하는것이니 이곳 古字의名稱이 그形象으로 생긴말인 同時에『고지』란 (朝)鮮語의 當語이라고도 할것입니다. 『高句麗穴口郡, 一云甲比古次』라한 輿地勝覽의文句나『江華本高句麗穴口郡, 一云甲比古次』라한 江華府志의文句를보면 古次 卽고지를漢字로 譯할때에 口字로써 當하엿던것임이 分明합니다. 實로『입』이란말의古語가『고지』엿더란것은 이곳地名의 變遷에서만 그證據를 볼수잇슬뿐아니라, 지금咸鏡道에서와 北京의 一部地方에서도『고지』『아구리』『아가지』『아가리』니하는말들이 남아잇슴을보면서 구지의구지(구지,구리,가지,가라)는 서로 넘나드는 轉訛의 말인것이 毋論이가 곳 고지와 同一語源을 알것이며 도한이와 아 지금日本語의『クチ』라는것이 本是 (朝)鮮語이엇던것임도 또 心然한事實이 업는줄 압니다.

甲串浦서 내려 北으로 뻗친 新作路를따라 천천히 걸으며 甲串에對한 語義를 이가리 각하는동안 興致잇는 漢詩 이 발을 자간어물라 精魂도 하건 마는 元來 一種의 趣味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山모퉁이 松林그늘밋 路傍草로를밟어 안젓습니다. 江都에 해는저물어 느리뫼살 이 질편한 들판 먼길에 가로누엇고, 어깨위 머리우에는 夕陽을 앗겨우는 저녁새들이운난 히도 재재입니다. 쉬어안고 지나가는 길손도잇 거니와, 내것해와 가치 안저다 일어서가는 사람도 잇읍니다. 한둥은이 쉬어가며 너무도오 래안자잇는내가 (殊)常도한지 말업시되 넘던번보고 해한번보 는것이『해다저문데 저사람 웨 안가노』하는것 갓습니다. 그래 나는 웃으며 스스로 노래한章 을읊렷읍니다.

『해다저문데 저나그네 오래도 쉬는구려
(내)이 예서도 十里라 한참인데』
『새소리 그치건가지오 당신이나 먼저 가시소』

學藝

現下朝鮮語의 重要論題인

『ㅎ』音에 對한 小論 ④

洪 起 文

바침特質의 考究

(一) 英語에서는(Bag)(백)의 (Bad)을(뱃)(Job)을 『쟙』이라고도 하지만『ㄷ』『ㅂ』의 母音을 弱하게 부친것이『배그』『배드』『조브』라고도 한다.

獨語 의 (Bug)(Bud) (ob)等도 그와가치『ㅂ』『ㄷ』『ㅂ』으로 도내지만뿐 『붹』『랏』『옵』으로도 낸다 아니, 『그』『라드』『오브』로도 낸다. 『ㄱ』『ㄷ』『ㅂ』과 가튼 破障音은 그 閉塞를 突破하고 내여야만 꼭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 閉塞를 바든채 그대로 發音을 딱 끈치어 버릴수도 업지안할것이다 發音學上 前者의 境遇를 外破라고 하는反面 後者의 境遇를 內破라고 한다.『빽』『맷』『쫍』는 內破에 依한 發音이요『빽그』『깨드』『쪼브』는 外破에 依한 發音이다. 그런데 朝鮮語에서 바침으로 쓰는 破障音은 全部가 內破로 外破라고는 하나도 업다 이 것이 바침의 한 特徵이다

(二) 오즉 破障音만을 破障치안코 내 버리어 둘수잇슬 뿐이 아니라『ㅈㅅ』과 가튼 摩擦音도

狹窄 된 音路에서 摩擦 作用을 이리키다가 말고 고만그狹窄한 音路나마閉塞하야 버릴수잇다. 破障音을外破와 內破로난호다면 摩擦音도 外擦과 內擦로 난흘지 못할소것이아니다. 內擦을 行한다고 해서 그 獨自의 音을가지지 안는것은 決코 아니려니와 閉塞作用아래 摩擦作用이 壓倒되야 內擦은 그 가장 가까운 破障音의 內破와 混同되야 버리기 쉽다 『ㅈㅅ』等이 바침으로 쓰이어 왜 『ㄷ』音과 混同되느냐 하면 그 것이 오로지 그러한 까닭에 지나지 안는다. 本來 英獨等 外國語에서는 오즉 外擦로서 內外擦의 區別이 거의

存在 치 안 한 모양이 다. 內破外破의例를 본떠서 內擦外擦이라고 命名한 것도 나의 獨斷한 行動에 지나지안는다. 그런데 朝鮮語에서는 바침으로 쓰이는 摩擦音이 破障音에서나 마찬가지로 全部 內擦이요 外擦이라고는 하나도 업다. 이 것도 바침의 한 特徵이다.

(三) 英獨等外國語에서는 鼻腔子音 卽『ㅇㅁㄴ』等에 對하야 口腔의 閉塞를 그대로 두고 鼻腔으로만 내기도 하고 鼻腔으로 내는同時 口腔의 閉塞를 解除시키기도 하는데 朝鮮語에서 바침으로 쓰일 때는 오즉 前者에 制限되야 後者를 容納치 안는다 이와 가튼 세가지의 特徵아래 다시 세 가지 바침의 獨特한

現象 이 일어 나게 된다 첫재는 바침으로서『ㄷㅅ』을 爲始하야『ㄱㄲㅋ』『ㄷㄸㅌ』等이 서로 混同되는 것 둘재는 바침으로서 子音이 한 個以上 더 存在치 못 하는 것 셋재는 바침으로서『ㅎ』音이 默音되는 것等이다.

(一)『ㅈㅅ』이『ㄷ』과 混同될 은이미 說明한 바라 더다시 되푸리하지안커니와『ㄱㄲㅋ』『ㄷㄸㅌ』等은 꼭 가튼 位置에서 꼭 가튼 作用으로 音을 내는것이라 內破와 內擦 아래서는『ㄱ』『ㄷ』等의 音을 區別할 餘地가 업다. (二) 萬一 外破나內擦을 許諾치 안코 또 諸

鼻腔 子音의 發音도 口腔의 閉塞를 同時에 解除치 안는다면 兩個以上 子音의 連接發音은 到底히 不可能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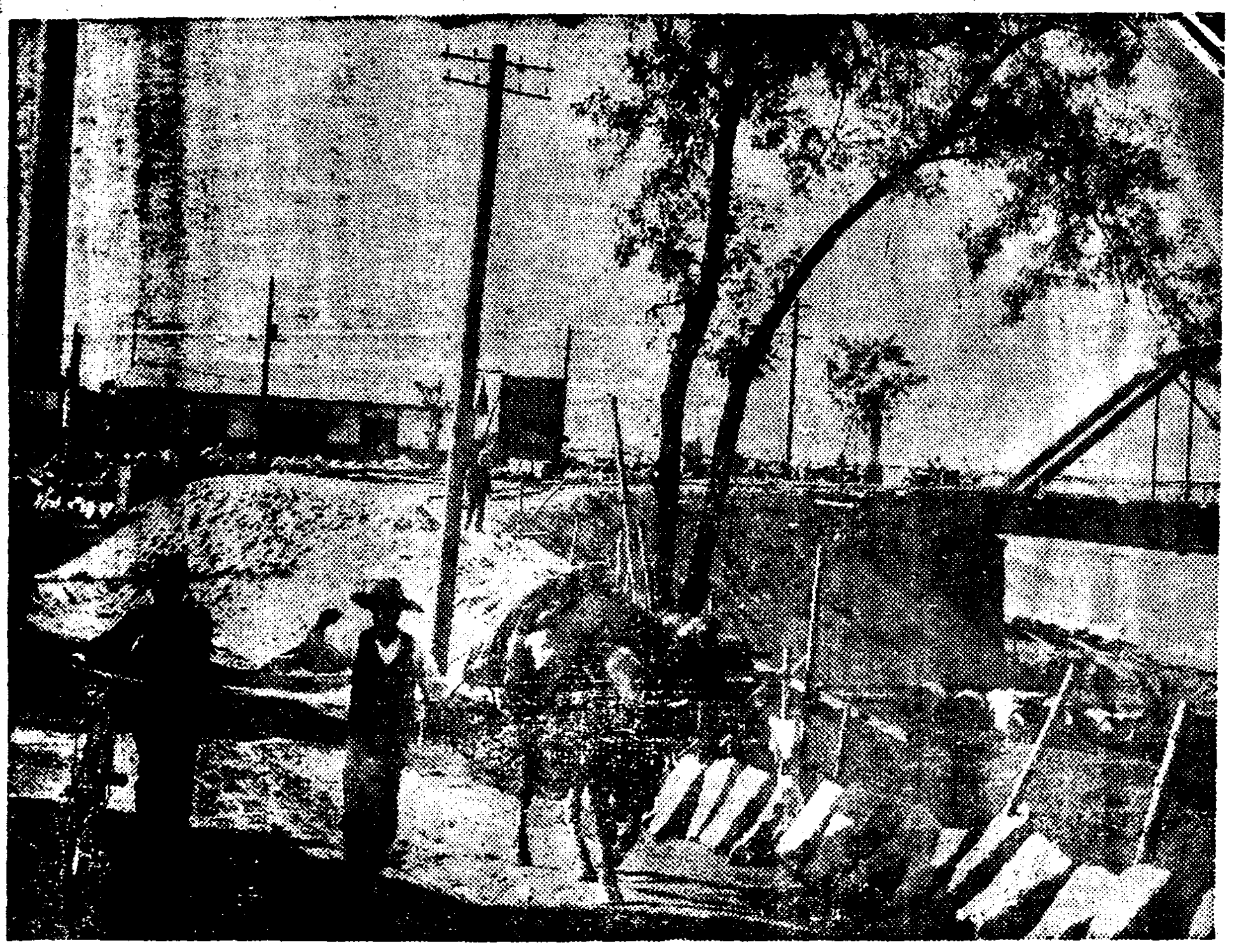
(三)『ㅎ』도 다른 摩擦音과 가치 外擦을 行할수는 업겟지만은 그러타고 喉頭摩擦이 內擦만으로써는 들어나지 안하게 되니『ㅈㅅ』과가치 『ㄷ』으로 混同될만한 處地도 못 되고 自然히 默音으로 박게는 더 돌아 가지 못 한다.

『낫는다』『쌋는다』『놓는다』나『쌓는다』『놓는다』가튼것은 소로 서서 바침으로서의『ㅎ』音에 對하야『ㅅ』音을 强要하는 분이 잇는바 거긔에는 아마 두가지의 假想的根據가 잇슬것이다.

첫재는『형님』이『성님』으로 또『효자』가『소자』로 母音우에서 變하는

例가 잇스니 母音아래서도 變하리라는 것이요 둘재는『ㅈㅅ』과가튼摩擦音이『ㄷ』音으로 混同되니 『ㅎ』音도『ㅅ』乃至『ㄷ』音에混同되지 안하라하는 것이다. 그러나 母音우에서『ㅎ』가『ㅅ』으로 變한다는 것은 오즉『길』이『질』로나『김』이『짐』으로와 가치『ㄱ』이『ㅈ』로 變하는例의 類니『ㅎ』바침에서『ㅅ』의音을 强要하는것은 마치『ㄱ』바침에서『ㅈ』의音을强要하는것과 다름이 업다. 또『ㅈㅅ』等의 口腔內摩擦은 그 摩擦中에잇서 音路를 閉塞하는 만큼 그와 가장 近似한 破障音卽『ㄷ』의 內破와混同될 條件을 가지지만은 『ㅎ』와가튼 喉頭摩擦은 그 音路의

閉塞 가장 가까워서 그와 混同되만한 破障音을 發見치 못하게 된다. 단지 母音아래서와 가치 母音아래서도 音路의 慣習上 몟개의『ㅎ』音이『ㅅ』音으로 變해 버리엇을찌는 모르나 그러라면 그것은 벌써『ㅅ』바침에 屬하야『ㅎ』音으로볼것이 아니다. 바침으로서의『ㅎ』音은 아모래도 默音에 지나지못하는 것이라『쌓는다』『놓는다』等의 殘存는 妥當치못 한 方法이 아니될수 업다.



——都市의 "바—리에테"——

隨筆

마음의 逆旅 (中)

柳致眞

三角山

나는 龍山을 갈때나 거리를 그닐때 때때로 北쪽하날을 본다. 거기에는 三角山이 막아섯다 나는 三角山을 사랑한다. 그때으로 나는 山音을 알앗다.

北漢山은 바저노흔 메주다. 웨그러케 平凡하냐? 그뒤에다 三角의秀麗峰을 감추려는 수작일까! 仁旺山은 허우대는 적은것이 웨그러케 점잔스러우려 하는지? 그생긴놈은 엡부장스러우나 그가지는 態가 교만하다.

나는 여태 山을 몰낫다. 나를 나허준 統營은 보이는게섬(島)이오 바다이다. 거기는北風이 寂한술을 모른다. 눈은 하로以上 쌔혀잇지 못한다. 문고리가 얼때에 冬栢꽃이 핀다. 그러케 溫和한天地이다.

그럼으로 나는 山의性格을 모르고 자랏다.

그러다가 나는 三角山을 보앗다. 그것은 北風에 질리고어름장에 깨겨서 山알맹이란 나타내고잇다. 三角山은 날내고도 깡치잇게 생겻다. 서울의 最北端에서 北風을막아내노라고 그는 얼마나 애썻든지 極히달련되고의몸둥아리가 모든過去를 잘說明해준다. 그의몸에는 한줌의군살도 업는것이다.

나는 三角山이 무슨色으로된 山인지 그基礎色을 모른다. 그의變化는 無窮하다. 季節과天候 한늘빗과 구름빗에따라서 三角山의山色은 變하기시작한다. 때로는 黑色이勝햇다가 紅色이弱하고, 때로는藍色이 勝햇다가黃色이弱하기도한다. 아츰에 보는 三角山과 저녁에보는 三角山은 스스로 다른것이다.

나는『라듸오』의 天氣豫報를 압못고 거리에나가서 三角山만 보고도 그날의天候는 대강 짐작할수잇다. ……이恩澤을 밧는 사람은 비단 나하나뿐이아닐것이다.

몸에싣은 老農夫갓다고 할것이다.

이때의三角山은 意志와忍耐와 壯嚴과憤怒의權化인것이다. 이러케 이山이 變할적에 조선을덥나드는朔風이 얼마나 酷한가를 나는 짐작할수도잇다.

그러나 차츰 봄이온다. 三角山의몽성이에 어려부튼 어름장이 녹는다. 그럴때에는 三角山은 누구보다 먼저 웃기를시작한다. 무쇠빗三角山이 다홍빗三角山으로 變하는때가 이때가아니냐?

三角山과가티 이러케 秀麗하고 이러케變化만흔山을 나는만히 못보앗다. 나는外金剛의 集仙峰 內金剛의衆香城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의山에對한滿足은 구태여멀리이金剛山의신세를 입지안코도 滿足시킬수잇다 그리고 우리는 地理에서 瑞西의山色美를 배웟다. 그러나 나는 그가三角山에比하야 얼마나 나흔지 疑心한다.

나는 三角山을 정신업시 치어다볼때에 언젠지본 獨逸映畵『靑光』이란것을 생각한다. 그 映畵에서 主人公되는少女(不幸히그일흠을니젓다)는 山의精氣에 흘려서 미친드시險峻한 山岳을 헤맨다 그러다가 結局洞里사람은 險해서 발도드려노치못하는 (때때로靑色을 發하는——)의山을 그少女는 踏破하려한다 洞里사람은 이를狂人이라하야배斥하얏다. 그러나 奇蹟的으로彼女는 그山의인딱대기를 征服하고 거기에서 靑色을發하는 水晶의洞窟속에서 이少女는 山精에 醉한드시 스스로 陶醉하는것이다.

나도 三角山을볼때 부지럽시 그山을 讚歎하고 거긔에 埋없어시 (蹟)跡속에 나는『靑光』을 생각한다.『靑光』과가리 그러케 거즘말로 꾸미지안코 實고거즛말만이아닌現實이것을 나는熱望하는 것이다.

三角山은 그三角山마이 조흔것이아니다。三角山連峰도 말할수업시 조타。나는 三角山을바라고 살수잇는 집을하나 求하고십다。

民謠研究

慶北民謠의 特異性 ⑥

金思燁

勞役과 關係를못이기여 조곰도 愛情이업는 서집을 버리고 졀을차저간다는노래 (去六月本紙所載拙論參照)가 大部分인데 以上의 노래와가리 細少한 物質的損失로 非難의標的이된 新婦가 行動바르게 應酬하며 舅姑를 보기조케 說服하여 버리엿다는것은 도로혀例外다

例二

하늘에는 베틀노코
구름에는 잉어거려
짤가짤가 짜노라니
동냥어서 便紙왓네
한손으로 바더드러
두손으로 펼쳐보니
시앗죽은 편지려라
(妾) (便紙)
괴기반찬 쓰러니만
소곰반찬 달고달다.

平에 怨讐가치 넉이든 시앗(妾)이죽어 엇다는 訃音을받고 快히녁인다는노래이니 고기반찬을 먹드래도 男便이 妾에만 熱中해잇는 어젯날의 生活에比하면 設令소곰반찬을 먹드래도 妾이업는生活이 낫다는 末二句는 嫉妬한男便을섬기는 婦女의 平常의 怨情이 잘나타나잇다.

D、勞動에 關한노래

어느나라에도 그러치마는 民謠의 原型은 勞作에서 起原된다。더욱이 朝鮮民謠는 그렇지못한分野에 어느것하나 勞動할때 불리여지지 안는것이업다 結婚의 幻滅에 對한 悲哀도 敍事에關한노래도 自嘆에 關한노래도 結局 勞役時에 노래로써勞苦를輕減식히고 또는 그들이 一致의行動을 取하야 能率을놉히려는 動機가太半이라고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다。그럼으로 特別히 勞働民謠라고 區別할必要가업스나分類上 顯著히 勞働時에 歌唱하고 그勞働에 直接取材하여 부르는노래를 此項에너엇슬뿐이다

1、機織歌
1、사승가
2、물래 노래
3、베틀노래
다、華露時에부르는노래
一、上蔟時에歌唱하는것
2、摘桑歌
라、보리打鈴

『테레비죤』 映畵館開設

—伯林에서—

【伯林發聯合郵信】流行의 尖端을것는『테레비죤』이 벌서斯界의『톱』을 끈허 近近伯林에서 實用化되게되엿다 獨逸政府는『테레비죤』에依한『뉴ㅣ스』報道를 計劃하고잇든바 맛침그準備를 完了하엿슴으로 伯林一流의 劇場을 常設映畵館으로 만들여고目下專門家들은 政府映畵部와協力해서 實驗中이라한다。『테레비죤』은 中央『테레비죤』放送局으로부터 電送되엿는데 音樂、話聲等 實驗은 非常히優秀한成績을 내엿슴으로 近近一般에게公開하려는 중이라한다。

黑風 【157】

韓龍雲 作
金熊超 畵

녀성해방회 11

『창순씨는 일체남자의 횡포를 제재한다는 강령을 세우고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녀성해방회원이 신대 일체남자중의 하나인 나로서그러한대에 오래 잇을수가 잇습니까 그러니까 재재를 당하기전에 제국으로 상십름계중의 상책을쓰는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여요?』

하는 왕한은 나오는 우슴을 참기에 조금 거북한듯하얏스나 억지로 얼골빗을 가다듬엇다

『에그 선생님두 나는 무슨일로 그러신다고 사람을 그러케도 놀내주서요 지금까지가 숨이 두근거리는데 요』

하는 창순은 처음에 안저버리면서 갓눈뜻한 숲체를 흡니고 뒤방의 표정인듯한 애교의 눈으로 왕안을 보다

『놀나섯다니깐 미안합니다마는 창순씨야 놀나실것이 잇서요 놀낫다면 내가 놀낫것지오』

하는 왕한은 아직도 시침을 떼다

『선생님이 웨 놀나서요?』

『웨라니요 제재를 당할러이니까 놀나지오』

『에그 그런 말(말)은 그만두서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고 다른의견을 말하얏다고 말슴하지안엇서요 나는 그회에 탈퇴하겟서요 조롱하지마서요 안지서서 말슴이나 더하고 가서요』

하는 창순은 마사는 해결이 되얏다는듯이 먼저 자리에 안는다

왕한이도 창순을 사랑하는중에 일시적 롱담으로 한것이지마는 잠시라도 창순으로 하야금 불안하게 한것이 미안하야서 가벼운 후회를 늣기면서 창순을 따라서 자리에 안는다

그들의 사랑을 속삭이는 십경은 첫은비듸의 개인날처럼 새로히 명랑하고 안온하야서 말과 정이 밤을 따라서 깁허가는줄을 아지못하다가 서쪽으로 기우려진 달그림자에 잇처숨은것을 깨다른듯이 왕한은 창순을 작별하고 나섯다 초저녁부터 오든눈이 처음으로 개이고 공중에는 구름한점이 업는대 서산에 걸녀잇는 이우러진 달빗이 눈위에 비처서 모든것은 한빗이되얏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대음모를 비저내는 당본부나 그것을 탐압하라면서도 아편연기에 잠겨서 꿈을꾸고잇는 경찰서나 가난한 사람의 깨어진 집이나 부자의 광하천마간이나 모두가 차별이 업는 은세계로 화하얏다 창순은 금직금직한 발자최로 활발하게뚜벅뚜벅 거러가면서 몃번이나 도라보는 왕한을 보내면서 눈위에 자욱진 왕한의 발자최를 따라서 두어거름을 거러 보다가 그의 다리의긴것과 발자욱의 큰것을 다시금 깨다러서 스스로 웃고 드러왓다

이튼날의 각신문에는 여성해방회에 대한 기사가 실녓는대 그회의 모든광경과 가결된 강령을 게재하고 특별히 창순이가 진술한 의견에 대하야는속기(速記)한것을 한마듸도 빼지 아니하고 게재하고 창순의 사진까지 내엇다 그리하고 그뒤에 각게명사의 거기에대한 의견을 실엇는대 일부 사회주의계통의 과격한 청년을 제하고는 모두가 의결된 강령은 너무나 긔분적으로 과격하야서 실행성이 업슬뿐 아니라 리론으로도 사회도덕에 맛지 아니하다는것을 말하고 창순의 진술한 의견에 대하야는 대개가적당 하다고 칭찬하얏다 그리하야 녀성해방회의 결의한 강령이 광동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약이거리가 되는 동시에 창순이는 더욱 평판의녀자가 되얏다

그후로부터 창순은 아지못하는 남자로부터 여러가지 편지를 밧게되얏다 단순히 칭찬하는 편지도 잇섯스나 칭찬하는 동시에 사랑을 요구하는 편지가 만하고 일부의 과격한 녀성해방회원으로부터는 위협하는 편지도 한둘이 아니엇다 창순은 녀성해방회에 관계한것이 사회적으로 처음 나간것인대 그 운동방식이 자긔의 비위에 맛지아니할뿐 아니라 자긔에대하야 여러가지로 시끄럽게 되는 것에 실증이나서 마침내 녀성해방회에 탈퇴하엿다

(詳細追後發表)

第三回秋期音樂大會

『時日』十一月二日(土)下午七時半
出演樂士 金元福、玄濟明、洪蘭坡 蔡善葉、朴景嬉、京保合唱隊
『場所』朝鮮日報社大講堂
主催 京城保育學校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曆

十月廿七日 (日)
舊十月建丁亥(大)初一日
丙子·水·東·黃
●祭祀·上梁·卯時·安葬·啓攅에宜함
●立冬八日(舊十三日)
●小雪二十三日(舊廿八日)

家庭醫學

胃腸機能의 根本은 酵素

病에걸니면酵素의作用이衰退

食物이消化吸收되면 피와肉으로 化하게된다. 人體의에네르기에까지轉化된다고하는것은, 昔日의常識으로되여잇다. 이런人間의生活을可能식히는第一段階로서는, 一般人의生覺하고잇는『消化作用』처럼 平凡한것이며, 더욱히微妙한 活動을하는것은업다.

生生한여러가지의食物을原形이 分解하야, 原素에까지還元식혀, 그리하야全혀相違한性質의物質을 지여내는

消化의工場

卽、消化器의活動은, 참으로驚異的이라하더라도 過言이아니다。그리하야, 그에酵素라고하는것이 잇서서, 그것이『消化의工場』의 다이나모잇트로되며 病에對한抵抗力의發原體로도되는것이다. 그런데滋味잇는것은, 이런酵素에는, 電氣的活動을하는이온을갓고 잇는것으로써, 물(物)을그表面에 吸着식히는性質이, 두가지의物質을媒介식혀, 서로活動케하는作用을갓고잇는것이다.

이作用을, 消化酵素에비치여생각하야보건대, 食物을입에너흐면 唾液中에는中性의푸챠린、마루타제等의酵素가잇서서, 前者는澱粉을덱스트린과麥芽糖에分解식히는 作用이잇스며, 食物은胃에나려서 그高溫度中에、酵素는活潑하게活動함으로써, 分解消化가促進되는 것이다.

胃의中에는 蛋白質을分解하는 페푸신, 脂肪을分解하는리파ㅣ제

牛乳에作用하는

라프等의, 酸中에잇서서活動하는酵素가잇는것이다. 十二指腸과 小腸은아루카리性을呈함으로서、酵素는 그中에서活動하고잇는膵臟으로부터오는차스타ㅣ제、도리푸신、膵液에包含된리파ㅣ제、에렙푸신、마루타ㅣ제等으로서, 蛋白質、澱粉、脂肪等大部分의營養分을分解하야消化吸收식힌다. 이런酵素에依하야消化、分解된營養素가어느듯血과肉이됨으로써、이런酵素의旺盛한活動은、우리들의 日常保健上、第一期待되는것이다

特히胃腸病、結核等의慢性衰弱病者에는胃腸을비롯하야體內諸細胞의機能이 衰弱하야 酵素의生活力이 減退되야 잇슴으로써他에 適當한 營養劑를 取하야酵素와 生活力을豐富케하야

綜合的인効果

를圖謀치안어서는안되지만 그에는『錠劑와가모도』의服用이適切하다고말할수잇다

이點에는、前述한脂肪、蛋白質含水炭素等을그에該當하게分解消化하는酵素와病體의衰弱細胞를復活식히는酵素等이 數十種을包含해잇슴으로써더욱그他에도비타민B를服用하면、胃腸을비롯하야 全身의組織細胞에 活力을주어서 病弱한 諸機管이機能的으로 强化되여옴으로써、食慾도進展되며 消化도促進되여옴으로써、胃腸은 自然히其方에로빠르게되는것이다

學窓과 삐타민B

시카고에잇는 學藝博士는 成績不良의 兒童四十六人에對하야、삐타민B를投與한 結果를 發表하엿다。一個月에 亘하야 實驗하엿는데、成績은著著히向上하야 學習力이現著하게優秀하여젓다고 報告(英國醫學通信)하야잇섯다。

卽、學童에는삐타민B를給與하라고하는結論에達하게되엿바이다 그에는赤脚氣等防止하며發育을 促進식히는效果도잇는것이다。

『錠劑와가모도』는삐타민B에富하며其他酵素、肉體의 肉重要한養素를兼備하여잇슴으로、學童에는가장適當한藥이다。

疲勞는 防止할수잇는것이다

西紀元前五百年頃古代希臘人의五種競技群

今日의疲勞가 翌日까지持越하게 되면 活動力을줄어며, 일의能率을低下식힘은 考慮할바이다。다시그것이 積重되면、老衰를 速하게하며、抵抗力의減退로부터 疾病의危險症에걸니게

結核 되는일이不少하다。

그러라고해서、複雜한現代의社會에잇서서는、疲勞치안흘程度의 安樂한生活이 許與된사람은가장 적고、疲勞의生活上、當然한現象이라고도할수잇는바、그러치만注意함에따라 그豫防은決코 不可能한것은아니다。

勞働하야 疲勞햇다고하는것은 一言으로 說明하면、이것은人體의新陳代謝의 파란쓰가 不正되야、에네루키가 消耗된現象이다

그리고 에네루키의 原燃은主로서食物中의 含水炭素가分解하야 구리코ㅣ겐(糖分)이 原動力이되야서成立되는다。따라서、身體를甚하게活動식히면 活動식힌수록、新陳代謝가昂進되며、急激하게含水炭素가 消費되는것이다。이것은 肉體的勞働之時에만限하는것이아니라 精神的勞働時에잇서서도同樣이다 그런데 最近研究에依한다하면 含水炭素가 구리코ㅣ겐으로서 新陳代謝에利用되에잇서서는 빠라민이라고하는 酵素의힘을 빌지안어서는안된다。

이런意味에서 勤勞精力을充進식히며빠지기쉬운 疲勞를 未然에 防止하기 때문에는、新陳代謝의 源泉이되는 구리코겐과 함께 삐타민B를

補給 하며 또는食慾、消化를 助長식히며一般食物의 營養素를 보담 利用하는것이 第一인바 거기에는 榮養과 育兒의會의『錠劑와가모도』의服用等이 가장効果的인것이다。

『錠劑와가모도』는 前記의 빠라민B가 生物中唯一의 豐富한사카로미세스菌製劑로서精力原으로서 直接으로 關係되는 구리코겐을 비롯하야 心身의 健康에 必要한各種의 營養素가 거이網羅되여잇다。그外에도 數十種에 亘하는活性

酵素 는 胃腸의 消化를 도와줌되야 여기에 도움는食物中의 營養素의 吸收를良好케하는 作用에、全身細胞에 活力을주며 諸器官을强하게하는効果도잇다。따라서活動時의 精力을充實히함으로서、그服用에 따라서自然疲勞를防止하는것이다

『錠劑와가모도』는 一二五錠의 一圓六十錢、六十三錠八十五錢價에、東京芝公園大門前、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頒布하며、各藥店에도잇다。有名藥은 依例히 類似品이만히 出現되며、利益만 追從하는藥店中에는 口錢이 만흔他藥을 勸하는傾向이 만흐하지만『錠劑わかもと』는 해ㅣ대藥中에도、營養劑特許의製劑工程을 觀하고잇음으로써 다른 小規模의工場에서는 決코模倣할수업슴으로써 十分注意하라。

療法相談

常習便秘때문에頭痛不眠、蕁麻疹에苦痛밧는

回答者 顧問 醫學博士 小田美穗

【質問】나는日常便秘로서언제나苦痛을밧기때문에 頭痛이나 上氣 또는頭部에여드름과가튼 것이나서、밤에도安眠할수업습니다。適當한素人療法을가르처 주십시오。(埼玉、翼生)

【解答】常習便秘에는두가지종 一은、直接的、卽腸으로서排泄時에肛門에아프게하며、痔疾等의原因으로된다。第二는、細菌에依하야糞便이腸內에서腐敗醱酵하야毒素가생겨서、그것이 血液에드러서全身을循環함으로써發하는間接的害가잇다。당신과가튼症狀뿐아니라、神經衰弱을이르키든지、中年以上의분이면、動脈硬化의原因이되며老衰를速하게하며、婦人들은皮膚의光澤을化식하며、濕하게주름이 잡히게된다。

그럼으로당신과가튼症狀을除去함에는于先便秘를치지안흐면 안됩니다。

그方法으로서는 食物에注意하며、너무軟하야消化키容易한飲食物의攝取할것이아니라、纖維質이만흔野菜나糖分에富한果物을먹히먹는것이조타。

下劑를마이면通便은되지만、常習性의便秘에는自然、連用케되으로써、여러가지의弊害를伴하게됨으로써、그보다도『錠劑와가모도』와가튼酵素와호루몬의 常用하야、活性酵素와 自然의 作用으로서、自然히腸의機能을 놉히며、生理的으로通便을順케함으로써가장適當的이됩니다。

腸チフス
絶對無害·內服豫防劑
(ヘチロゲン) 一人分
注射不要
特約店에잇스니(ヘチロゲン)이라고指名하라
東京市芝公園·同仁製藥株式會社

區域十一郡에亘한 洛江沿岸砂防工事

出動賦役벌서三十五萬餘名 十月中旬現在統計

【釜山】락동강지수의 근간이락동강류역의황폐지의 사방공사는 금년도부터 십개년계획으로 총면적일천구백정보 총공비 팔십팔만오천오백원을투하하야 지난오월부터 김해 기장 양산 밀양 하동 창녕 의녕 합천 산청 함양 진주등 십일개군에 궁하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잇는데 금월중순까지 출동부역이 뜰정·삼십오만삼천여명으로 요사이 추수기로 일반농가에서는 여간분망한때가안인데 이사방공사부역때문에 무등을하고잇다는데 관계당국의 부역출동독촉이 성화가려서 추수에 지장이여간만치안다고한다

面民大會開催코 學級增設期成

【扶餘】충남부여군 규암(扶餘郡窺岩)면 외리(外里)에 보통학교와 동면신리(新里)에 간이학교뿐인데 이것조차 불완전함으로 유감으로 여기든 면내유지들은 지난이십일 오후한시에 규암면사무소회의실에서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보통학교 학급증설기성회를 조직하엿는데 피선임원과 결의사항은 다음과깃다

◇討議事項
一、學級增設及學年延長件
一、基本金 六千圓中二千圓面民負擔(寄附)의 件

◇期成會役員
會長 金顯昌 副會長 李貫鎔 總務 金鵬斗 理事 鄭在興外十七人 幹事 各里區長十九人

仁川櫓崎組의 支配人行方不明

【仁川】지배인을 차저주오=시내화정(花町)일정목구십사번지 류귀조(櫓崎組)지배인 신태의(辛泰宇)씨는 지난 십삼일 상경한이래 일체도라오지 아니함으로 동조사무원은 그의 친척동이잇는곳으로 탐색하엿스나 연행방을 알길이업서 소관경찰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는데 금전에 대한 문제나 업나하야 방금 장부를 조사중이나 아즉 자세한내용은 알길이업스나 지배인이만큼 가장주목 된다한다

豊山殖組創總

【豊山】지난이십일오후이시경 동군풍천면가곡(豊川面佳谷)양조장에서 리서의장 권순표(權淳杓)씨사회로 총자본금 십만원의 풍산식산조합(豊山殖産組合)창립총회를 개최하엿섯는데 규약급 결의사항개요와 역원의씨명은다음과갓다고한다

一、本組合事務所는豊北線豊山驛前에置하고營業地에必要로認할時는出張所를置할것
一、本組合의業務는 穀物貿易 米 肥料 鷄卵其他附帶事項으로할것

◇役員 組合長權五鼎 副組合長權寧灼 專務理事權寧愼 常務理事朴三燁 理事權寧化 朴永鎭 權五億 權景錫 監事權寧昌 金斗玉

仁川土幕村에 一圓자리火災

【仁川】시내 도산정(桃山町)토막촌 정동운(鄭東雲)의 집에서 지난이십사일오후 십시경 발화하야 그즉시 소방대의 출동으로 진화되엿스나 손해는약 일원이라한다

大規模로進行中인 紅蔘密造團檢擧

時價一萬圓現品押收

【開城】지난이십이일 오전십시경부터 개성서 목현(木峴)부장외 조(趙)김(金)박(朴)삼순사는 부내원정이백오십이번지 탁귀원(卓貴元)의집에서 대규모로 홍삼을밀조하고잇든 현장을 습격하야 홍삼상백여근 시가이만이천여원어치를 압수하는 일방 이에관련된 부내지정 십번지 백남희(白南熙)원정(元町)리규석(李圭錫) 백남희(白南熙)김오복(金五福)등 사명을 검거인치하고 지사방조임이 엄중 취조중이라는데 전긔 백남희가지난 팔월 삼사일경에 김포군양서면(金浦郡陽西面)에서 수삼(水蔘)일천오백여근을 개성으로 반입하야 홍삼을제조하야 향항(香港)과상해(上海)로 보내려다가 미연에 발각된것이라한다

西亭 達川 江下流防築으로 流域農作에大害

五百餘地主의連名捺印으로 當局에水門設置歎願

【定州】정주 평야를 흘러나리는 서정(西亭)、달천(達川)량강연안의 수천여정보는 정주의 유일한 옥야로써 흉풍을 모르든 옥토이다 이제 서정、달천량강의 류역에 벌어저잇는 칠개방천(七個防川) 경지면적 수천여정보 관계농가 이천여호에 만여농민의 생명선을 협위하는 서정달천량강 하류의 합류지대(合流地帶)에 제언 축조로 인하여 농토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주읍내에도 침수등으로 피해가불소함으로 지난 이십삼일 관계지주 송원빈(宋元賓)외 오백여명의 련서탄원으로 도군(道郡)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엿다는데 이제 그탄원의내용을 자세히 조사한바에의하면 대정육년도에 정주군남서면(定州郡南西面)소재 서수농장(瑞穗農場)이 설립이래 이상량강하류에다가 제방을 축조하엿는데 그후부터는 조고마한비가 나려도 제방때문에 상류지방에서 물려드는 다량의 수량을 배수하지 못하여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주시가지에까지 침수하는형편이며 도다변간 상류지방에서 밀려나려온 사토(沙土)가 제방으로인하야 하류로 류출하지를 못하여지세는 점점높하감으로 기름지든 전지(田地)가 로화하는등 실로 그피해가막대함으로 지난소화이년에 관계지주들이 도군당국에 진정하엿여 토사퇴수문(土沙退水門)삼개소를 설치하야 홍수시의 피해를 방어하게하엿스나 이상삼개의수문으로서는 도저히 능률을올리지 못함으로 관계농민은 다시소화구년팔월에 진정위원을 도당국에 파견하여 수문오개소 가설을 진정하엿는바 도당국으로서도 설치하여주기로 응락하엿스나 하등실현이 업스므로 작년이래에 다섯번이나 진정을 한결과그후 도당국에서는 군에명하여 수문을 증설케하엿스나 아직착수도 하지안코 전부준공되것처럼 도에보고하엿다는데 그후진정위원이 다시도당국을 차저가서 수문가설을 진정하엿든바 도당국에서는 벌서 준공되엇을만 알고잇섯슴으로 관계농민은 분개하여 그와가티 다시 오백여명의 서명탄원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엿다는데 일반은 결과여하를 주목중이라한다

許可證가진者에 自由漁業을禁止

航路地點의漁獲은不法이라고 南浦署科料로處罰

【鎭南浦】어항 진남포에는 작년도에 어업조합(漁業組合)이설립되면서 조선인측 재래 어시장을 폐지하는입방 조합원이아니면 어업따라 자유로 하지못하게되여 수천어업자들은 살길을일코 도로혀 방황한다는한은 루차 보도한바어니와 지난 이십삼일에는 도지사(道知事)의허가증을 가지고 백해잡이를 하고 잇든 어업자 삼십여명에게 진남포경찰서 수상파출소(水上派出所)에서 감찰표(鑑札)를 압수하는동시에 잡어논백해를전부 몰수하고 본서로 호출하여 과료 오원식을 바덧다고하는데 그리운는 아모리허가가 잇다고해도 항로(航路)에서는 허할수업다는것이라는바 어업자 모씨는 다음과갓치말하다

漁業者某氏談

무슨일인지 알수가 업습니다 허가가니 감찰이니 업슬때에도엇더곳에서든지 마음대로 잡어왓는데 허가증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잡지 못하게 하고 또벌금까지 바드니 이러케 심하여서야 살수가 잇슴니까 우리삼십여명의 가족을 합하면 백여식구가 수백원식의 자본으로 생명을 달고잇는터인데 압흐로엇더케하여야 될는지 한심한일입니다 운운

『조개炭』피우다 少婦窒息死亡

【元山】관북의 저무러가는 가을은 엄동을 재촉하야 노점(露店)에서 과실장사하는 젊은녀자로하야금 조개탄불에 질사(窒死)케하는 비극을 만들엇다

원산부 해안통 공설시장한모퉁이에서 한간두옥을 짓고 푼전을가지고 과실장사로 연명하는 리종윤(李鍾允)의 처계순남(桂順南)은 남편이 석왕사로 로동하려간사이에 북국의 가을밤치위에 견듸다못하야 실과사러왓든 사람이 버리고간 무연탄의 일종인 조개탄을 피

嶺美金組橫領事件 理事責任을難免

組合員間物議沸騰

【新義州】평북박천군 녕미금융조합(博川郡嶺美金融組合)의 출납계에서 일을 보고잇든 리재준(李載俊)(二〇)이가 금월 오일 그가 보관하여가지고잇든 공금 육천이백원을 가지고 다라난사건은 엄대중통을 니르켯슬뿐안이라 경찰측에서도 크게 긴장하야 게속적으로 그의 행방을 엄탐중인데 그가 금월오일의 일요일을 리용하야가지고 공금을 휴대한후 즉시 신의주로 드러와 대담히도 어떤 상점에서옷까지 산、혁적이 잇슴으로 그가 만주방면으로 다라난것이 틀님업서 당분간 그를 체포키가 곤난케되엿다 그런데 이에 문제가 되는것은 이 리재준은 조합의 서긔로서 자격이 불충분한관계로 조합원보증서도 불비가잇서 돌려보내든사이엇든데 조합의 책임자인 리사(理事)는 막중한 금괴열쇠를 이리재준에게 맛겻고 또그남은 운동회에 구경을 가고엇섯든사이에 이와가튼일이 이러낫슴으로 이는 확실히 조합리사가 주의부족이란 책임을지지안흘수 업다 즉 이와가티리사의 주의가 부족하야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다함은 옳지안타고 그곳일반의 여론이비등하엿다한다

놀나운交通事故

【平壤】평양의 발전상은 무엇보담

執達吏事務員이 不正競賣코被訴

二名을檢擧、嚴重取調進行中 —事態의進展을注目—

【金海】추수기를당한이때 어느곳을물론하고 농민들에게는 집행문이 쇄비한다 더욱이가혹한것은 집달리 사무취급원(執達吏事務取扱員)으로서 연기하엿든 경매일자를 꼿치여서 주는돈도 밧지안코 경매를 하엿슴으로이 경매를당한 농민은 어굴함을참지못하야 김해경찰서에 사실대로 고소를 지난이십삼일에 제긔하엿든바 경찰서에서도 이어급한 고소를접수하자 즉시집달니일명과 동사무취급소 부하일명을 검거하야 취조하게되엿다 김해군주촌면선지리(金海郡酒村面仙池里) 최영환(崔永煥)은 지금으로부터 약십년전 예긴해옥내 김주석(金周錫)이란 사람에게 도산심원을 차용하엿이잇든바 이것을 밧고저채권자 김주석은 집달니사무소 종무원 박상섭(朴尙燮)에게차용증으로 막기어두엇든바 이것을바든박상섭은긔회로알고 전긔최영환의논을 지난 십일일에집달이사무원 정희춘(鄭和春)을 다리고나가 차압하엿다 채무자 최영환은 즉시채권자김주석을 차자 원금삼십원에 그동안 리자구원을 가산하야 삼십구원만 주고밧기로하고 경매일자 십일일을 이십팔일로 집달이사무소에가서 연기하엿더니 또박계도 지난이십삼일에 집달이사무원 정희춘은 동소에종무원오명을 다리고 나가서 다른사람은 오기도전에 부정한경매를하야 시가백원이상될것을 최액도 안된 오십여원에 동부하(총무원)에게 락찰되고 마렷슴으로 이억울한경매를 당한 최영환은 즉시동사무소에가서 집문하엿든바 무예라고 답을못한 정희춘은 최후로 말하기를 경매긔일이 오날이나가 하엿다함으로 서류를내여보니 경매일자 이십팔일을 이십삼일로 곤친것을알고 즉시 김해경찰서에 고소한즉 경찰서에서도 이와가튼 사건은 특히 처분하지아니하면 안될의향으로 이십사일에 관계자전부를 불러 취조중이라한다

飛行機탄小作料

連三年引上!또引上! 小作人等情景이可憐 —東拓支店의處事—

【釜山】경남동래군사하면(東萊郡沙下面)에 잇는 동양척식회사(東拓會社)소유 답(畓)에 동회사 부산지점원이 지난 이십일에 와서 간평을하고 금년도 소작료를 결정하야 각소작인에게 승인을 바덧다는데 금년도 수확예상은 작년도와 가튼데도 불구하고 소작료는 매두락에 작년보다 이두이상 삼두가량 증가이고 소화팔년도 보다는 오두이상의 증가이라 일반 소작인들은 회사측의 무리를 통론하얏스나 출장한 사원이 듯지안함으로 그들은 소작인이란 불리한 입장에 잇슴으로 눈물을 먹음고 승인을하얏는데 그중몃몃 소작인은 꼿꼿내 승인을하지 안코 항쟁을 게속중이라한다 그런데 동면에잇는 동회사의 소유답은 한등롬으로 보통답 보다 경작에 곤란함 경비가 이할이상 더 든다고하다 그래서 수확고를 지주사부 소작인륙부로하여도 다른논에 비하야 손해라는데 회사륙부 소작인사부의 현상으로 펴으나 억울한 처지에잇다 한다이제각책임자들의 말을듯건데 다음과갓다

小作人某氏談

참 무리한 소작료 이올시다 소화팔년도에 일석오두가 소화구년도에 일석팔두로 증가하얏고 금년도에는 이석삼두라는 무리한 소작료이올시다 이뿐안이라 소작료 납입에도 다른지주보다 혹심하야 근량(斤量)급 두량(斗量)두방법을 병행함으로 여간억울치 안습니다 작년도에도 풍작이라는 구실미테 이석이두의 소작료를 결정하얏기에 거절하고회사원의 립회하에 타조한결과 일석팔두를 납입하얏는데 그것보다 오두나 더납입하라니 엇지 무리가 안입니가운운

東拓釜山支店 農業係主任談

계원이 업서서 자세한것은알수업습니다 사실과거에는 소작료가 너무 헐하얏기때문에 증가한것 갓습니다마는 회사로서는 회사오부 소작인오부의 방침으로 간평을 실행하고 잇습니다 만일 소작인이 최후까지 버틔면 이작시기겟습니다운운

青年一名轢死

【安州】지난 이십삼일 밤집이시경 안주군 신안주역 부근에서 이십오륙세가량되는 청년한명이 무참하게도 륙사되여 시체가 산산히 부서젓다는데 아직주소성명은 몰으나 원인은술이 취하야 궤도를베고 잠들자 다 그리된모양갓다한다

國境短信

◇신의주하정(下町)사는 박정만(朴晶萬)은 삭월셋방을엇고하야 생활을 하든터인데 만으로는 섬이 차지안흠으로 금월오일 삭으로 맛엇든 양목천원가격의옷을 그대로가지고 봉천방면으로 다라낫든바 하주의 고소로 지난십구일 봉천에서체포되여 신의주로 와다고 허욕은 지옥!

◇……◇

▲지난이십일일 신의주역압헤서는 산사한분이 이십원가격의 금을 밀수하려는것을 발각하고 인치취조중인데 적잔은돈이 차피먹심! 국경은밀수천지라 근접자혹이되엿이가

◇……◇

▲경남진주(慶南晉州) 김대림(金大林)(二〇)은 금이천칠백여원어치를 가지고 국경세관의 난관을 돌파하야 안동현에서 무사히 따짓까지는 조와는데 지난 이십일일 그돈을 가지고도라오다가 차안에서 이동변경찰에게『어재그와가티 만흔돈을 가지고잇느냐』는바람에 그만사실을 자백하고따엇다고 목하신의주경찰서의 류치장안에서 한숨만지우고잇다

全朝鮮蠶絲業者大會

【大邱】조선 잠사계(蠶絲界)는 최근생사의 가격이 고등함으로써 다소활기를띄운바이 보이고 잇스나 원료품부족으로 말미아마 제사업자는 원료공급의구조긔를 듯고잇다 이에 적극적으로 조선의잠업을장려하며 발전을귀코저 잠사회(蠶絲會)잠종조합중앙회(蠶種組合中央會) 상묘조합(桑苗組合)련합주최로 이십삼일오후세시부터 대구공회당에서 전조선잠사업자대회(全朝鮮蠶絲業者大會)를 개최하엿는바 조선각도에서 륙백칠십명의 제사업자가 출석하야 좌긔각항을토의하엿다한다

一、蠶業의積極的獎勵의件
一、建議案提出의件
一、其他事項

異次頓의死

【25】 李光洙 作 金奎澤 畵

그러나 아모리 어머니의 정경을 생각하더라도 평양공주는 이차돈과 달님에게 대한 원한을 삭커버릴수는 업섯다 내것이어니 하고 바나제 그리던이차돈을 달님에게 빼앗긴 원한은 생각만하여도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렷다

『아모리하여도 두 연놈의 목아지가 떨어저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야』

하고 공주는 압해 누으신어마마도 이저버리고 혼잣 말로 중얼거렷다

이 때에 시녀가 들어와서

『공주마마 선마로이손께오서 마마께 엿줄 말슴이잇다하와 큰마루에서 기다리시오』

하고 엿주엇다

『숙부가?』

하고 공주는 일어나서 밧그로 나오면서,

『숙부 무슨 일로?』

하고 고개를 기울인다.

선마로(立宗)는 상감의 친아오시지마는 상감과는딴판으로 보기에도 아조 건장하고 씩씩하고 그리고 야심이 만만한 상모를 가지엇다 (이 이는 장차 이입금 진흥왕(眞興王)이라는큰 임금이 되십이다.)

『숙부 웬 일이시오?』

하고 공주는 선마로의 허리굽히는 인사를밧으며,

『숙부, 이런 분하고 원통할일이 어듸 또 잇서요? 어쩌면 이차돈이 달님허고―생각하면 가슴이 터지게 분해요. 숙부상감마마께오서 지금 조회를 밧으시러 정전으로 납시엇으니숙부도 얼는나가서 이차돈과 달님의 목을 자르도록, 배를째게 마시고 망난이의 무딘 칼로 목아지를 스므번씩만 적어서 잘르도록 말슴해주서요. 상감마마께오서 마음이 약하시오셔 또 누구 말을 듯고 어떠케 마음이 변하실지 모르니 숙부는 이몸의 편이 되어주서요』

하엿다.

『그러하오리다.』

하고 선마로는 공주의 눈치를 엿보며,

『이몸도 도깁고 하도 해괴하고 분하여서, 만일 나랏 법이 업고보면 이 몸이 손소라도 이차돈의 목을 버혀서 공주마마 분하심을 풀어들이고 십사오나 나랏법이 그러치를 못하여서』

하고 공주의 비위를 마춘다

공주는 눈을 크게 뜨며,

『숙부가 이몸의 속을 알아주시오』

하고 선마로를 향하야 고개를 숙인다.

『그러치만』

하고 선마로는,

『그러치만 그겻칭 염려마시겨오서서 오늘 조회에 말을해서이차돈의 목숨을 그냥 두더라도 이몸이 귀어히 이차돈을 불고를 내고말리다』

하고 주먹을 불끈 쥔다

『그러치만 이차돈은 공주며 백제를 다 떨어도 겨룰수업시 칼을 잘 쓰고 용맹이 잇스니 숙부가 어떠케?』

『무어? 고만 어린애를 어떠케 하든지 이몸이 생각이 잇스니 공주마마는 염려를 부리시오。 이몸이 공주마마께 듯고십흔것은 이차돈을 꼭 죽이고 십흔 생각이 계신지, 또는 이차돈을 생각하시고 아끼시는지, 그것을 엿주어보랴고―』

『그야』

하고 공주는 깁게 한숨을 쉬이며,

『이몸이 이차돈을 생각하기야, 아끼기야, 천하에 이몸이 이차돈을 생각하고 아끼는것보다 더 생각하고 아끼는것이 잇섯슬까? 이몸보다도 이 목보다도 더 생각하고 아꼇지마는』

하다가는 말을 끈코 손으로 낫츨 가리우고 애통하게 한바탕 울고나서,

『그러치마는 인제는, 인제는 천하에 이차돈 가리 미운것이 또 잇슬까。 이차돈가리 큰 원수가 또 잇슬가。 이차돈의 가슴을 입으로 뜻어헤치고 그 간을 내어 씹어삼켜도 이 원한은 못 풀릴것을』

하고 이를 갈고 운다。

『다 알앗슴니다。 공주마마 가슴이 어떠케 아프신줄도 이몸이 다 알앗슴니다。 그러면 이차돈의 목은 이몸이 마탓스니 마음노으시겨오』

하고 공주의 압헤 허리를 굽히고 물러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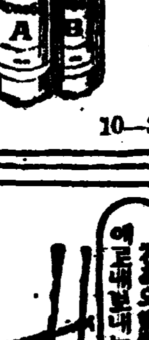
平壤藥令開市

日時 自陰十月一日至十一月十五日
場所 平壤府橋口町八千代町間十字街路
事務所 平壤府南町一五 (電話二〇八八番)
本組合內倉庫設備、委托賣買引換受荷

男子 性器強大器 早漏防止
男女理想的防毒產制要具
日米佛露에서大好評의新案ポケット用理想器特價一圓半說明書進呈
京城堅志洞五五 (振京一八二三) 直輸入品 專門取扱 三寶商會
一打壹圓半

強力 男性ホルモン
효루몬
アンドロスチン
안드로스친

精力・精神力을旺盛히하고體力・活動力을增進하며또生殖器衰弱早老症・性的神經衰弱其他心身의衰退에따라일어나는諸障害에應用되며迅速히그效力을發揮함 (內服用錠劑로도效力이顯著함)
錠劑三十錠入 定價三圓八十錢 外에二百五十錠入及注射六管入・五十管入잇合
文獻은大阪市東區瓦町三和ビル內陽西バーゼル化學工業會社日本學術部에서郵呈
日本總代理店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特約店 東京 小西新・鳥居・三共
10—38



一의男性호르몬劑
雄性生殖腺의全有效成分含有

百日咳에 小兒用、고데스
各藥店에서販賣
佐岡製藥所

十月二十六日부터特別大公開
大衆席 十錢均一
大都映畫超特作現代劇 ハヤフサ ヒデト監督主演 愚意의大猛闘活劇
地獄に結ぶ戀
琴糸路美子 鳥英明 共演 流線型의街는다시肉慾仲間同志로 血의仁義愛欲의葛藤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루이스·카로르原作·노만·마크라오드監督
不思議의國아리스
게리구란트·에드나·메이·올리버 出演 당신을童心에로更生케하는 愉快의案內映畫어린애기들께는큰歡迎을밧고잇슴다
大都映畫超特作時代劇 巨匠白井戰太郎監督快心의傑作 近衛十四郎、本下雙葉主演
銀平そづれ格子
東董子、相良傳三郎、浮田勝三郎、堅井三郎、淸水明大競演
櫻井町 電話本局八 大正館

十月二十六日부터公開!!!
土曜日晝夜二回!!! 낫一時밤七時半始映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奇怪劇 킹콩의復讐 全十卷
監督:아에스도슈도삭구氏 主演:로바드암스도롱구氏 헬렌막그래
獵奇味와奇怪怪物과美女의 二十世紀驚異의一大奇社怪異篇!!!
FOX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아메리카祭 全十卷
監督:헨리킹구氏 主演:자넷트께이나 윌로자ー스氏
第七天國以來의傑作!! 諸賢에게밧치는一篇
全發聲 — 스 全部
次週十月二十九日부터!! 奇蹟의處女、藥師巾後篇 チキサスの旋風
電話 三三 桃花劇場

「스페로인」의偉大한作用
◇「스페로인」을 頓服하면 喘息의發作을 ...
◇完全한기침이 그치고 ...
◇이와가티 有效하나 ...
「스페로인」實驗者는效力의偉大함에놀라서...
適用症 喘息 百日咳、感冒、神經痛、偏頭痛其他기침의諸症
價藥 三圓、四十五日分五圓、百日分十圓 (有名藥店에有함) 無料代金引換五十錢加
スペロイン發賣元 東亞藥園 大阪市天王寺區東平野町三ノ六(電車上六)
特約店 京城南大門通新井藥房 同本町四丁目木村藥房 釜山辨天町 平壤大和町森田藥店 大邱本町藥店

천식
완고한기침에 놀라운新創見劑
「スペロイン」(스페로인)을 速히服藥하고全快하십시요
注射以上의頓服藥

당장에 숨이 꼿칠듯한괴로움

最近世界의 貿易·工業活動

國際聯盟調査에 依한 最近世界의 貿易과 工業活動狀況은 如左하야 前年에 比하야 一般的으로 進步的이오 特히 日本의 躍進이 注目된다한다。

世界貿易 먼저 世界貿易金價格은 一九三五年上半期에는 前年同期보다 一·六%低下하얏스나 一九三四年七月보다도 顯著한 增進을 示하얏다。(輸入에 잇서서는 五·八% 輸出에잇서서는 一三·五%) 一九三五年上半期貿易價額의 이 減少는 全然 平均金價格의 下落에 基因한것으로서 貿易數量은 前年同期에 比하야 約二%增大하얏다。

×

若干의 重要貿易國의 外國貿易價格은 各自國의 通貨로써 今年은 確實히 增加되엇다。一九三五年七月까지의 輸入은 前年同期에 比하야 以下와가티增加하얏다。即 米國의 二一%、南阿聯邦의 一八%、日本의 一六%、英國의 一五%、白耳義의 一四%、瑞典及印度의 一一%、加奈陀의 六%、丁抹의 五%、蘇聯邦의 二%等이다。英國의 輸入은 不變이다。

輸出增加는 日本 一七%、[illegible] 一四%、[illegible] 一六%、白耳義 八%、오스트랄리아 七%、丁抹 五%、印度 四%、체코슬라바키아 二%이오 米國、瑞典、加奈陀及瑞西는 輸出上增減이 업섯다。

×

그러나 若干國의 貿易은 더욱 減少되엇스니 即 輸入에 잇서서는 蘭領印度 三%、伊太利 四%、中國 五%、체코슬라바키아 七%、獨逸 八%、瑞西 一一%、佛蘭西 一四%及和蘭 一五%의 各減少이다。輸出에잇서서는 南阿聯邦 一%、中國 三%、獨逸 四%、和蘭 六%、伊太利 七%、佛蘭西及蘭領印度 一一%、蘇聯邦 一六%의 各減少이다。

石炭生產 一九三五年 最初의 七個月間의 世界石炭生產月次平均은 一九三四年同期보다 二·七%가 增大하얏스나 一九二九年平均보다는 一八%低位이다。

石油生產 一九三五年上半期의 世界石油生產月次平均은 一九三四年上半期보다 五%가 一九二九年平均보다 四%가 增大하얏다。

卑金屬生產 卑金屬의 生產도 또한 顯著히 增大되엇다。一九三五年最初의 七個月間은 前年同期에 比하야 銑鐵及鋼鐵生產은 一〇%乃至一五%、銅은 推定이지만 約二七%의 各增大이다。

世界工業活動 世界工業活動은 一九三四年中에 九%增進하고 一九二九年을 約一四%下廻하는 水準에 達하얏는데 一九三五年에 入한後도 多數國은 增進을 繼續하얏다。

今年에 入한後 資料를 入手한 各月平均을 前年各同月에 比하면 二十一個國中 十八個國에서 工業生產이 增大하얏스니、即 伊太利 二〇%六、蘇聯邦 二〇%三、智利 一八%四、瑞典 一七%三、日本 一二%八、瑞典(?) 一〇%五、丁抹 九%七、匈牙利 八%九、加奈陀 八%六、오스트랄리아 七%九、芬蘭 六%六、英國 六%七、米國 六%六、希臘 五%二、[illegible] 三、羅馬尼亞 一%八、白耳義 一%五의 各增大이다。체코슬라바키아는 同一水準이오、佛蘭西의 九%六이 減退되엇슴에 不過하다。

×

一九三五年의 工業生產高를 一九二九年平均과 比較하면 十一個國이 增大되엇스니 即 蘇聯邦의 一七六%四、日本의 三八%二、希臘 二〇%二、丁抹 一九%四、智利 一七%五、芬蘭 一五%八、瑞典 一六%二、匈牙利 四%三、[illegible] 七%五이오 他十個國은 一九二九年平均보다 低下되엇스니 即 [illegible] 一九%七이오 伊太利 七%二、[illegible] 九%七、加奈陀 二一%七、오스트랄리아 二五%五、米國 二六%六、白耳義 三一%一、和蘭 三一%八、佛蘭西 三三%六、체코슬라바키아 三三%九、波蘭 三五%三이다。

米穀自治管理修正案
來議會에 通過必期
來月四日米穀對策調査會서
農林省原案承認?

【東京電話電通】山崎農相은 二十五日의 閣議에서 來議會에 提案할 米穀自治管理法案外 二件의 法律案에 對한 說明을 하야 農林省의 方針을 明白히 하고 諒解를 求하얏는바 米穀自治管理法案은 六十七議會에서 猛烈한 反對에 遭遇하야 衆議院에서는 大修正을 當하고 겨우 通過하얏스나 貴族院에서는 마츰내 審議未了로된 法案이니만치 山崎農相도 來議會提出에 對하야서는 자못 愼重한 態度를 取하야 過般來 米穀局으로하야금 調査研究를 식히고잇는바 겨우 方針이 決定되엇슴으로 二十五日의 閣議에서 來十一月四日 米穀對策調査會를 開催하기로 決定하게 된것이다。그리고 드듸어 本格的으로 새로운 米穀自治管理法案의 審議를 行하게 되는것이다。그리고 農林省이 調査會에 附議하려는 米穀自治管理法案은 六十七議會에서의 衆議院의 修正案을 法文化한것으로 同議會에 政府가 提案한 案에 比較하면 該法案運用上의 產業組合의 機能을 發揮할 方針으로 縮少한것으로 今春議會에서의 反產運動이 奏效한것을 證左하는것이다 그리고 如斯히 農林省이 原案을 固執지안코 來議會에 修正案을 提出하려함은 한갓 反產運動을 두려워하야 法案의 無事通過를 圖하려는 政治的見地에서 出發한것인데 果然 米穀對策調査會가 農林省原案을 그대로 通過시킬지는 자못 疑問視된다한다

水產界活況
東海一帶의 鰮漁獲
一億四百萬貫、一千四十萬圓
搾油率도 好成績!

今年 東海一帶의 鰮漁는 자못 好績을 示하야 十月初旬까지의 漁獲은 一億四百萬貫 價額 一千四十萬圓으로 前年 總鰮漁獲 一億五千百萬貫을 거의 追從하고잇는바 搾油率도 良好하야 今月十七日까지의 鰮油生產高는 三百七十萬貫 價額 三百二十萬圓으로 今年은 적어도 鰮油五百萬貫 그價額 一千三百萬圓 搾粕 一千五百萬貫 鰮油合計 二千八百萬圓突破豫想으로 前年鰮油 六百七十萬圓 搾粕 九百五十萬圓 計 一千六百萬圓에 比하야 一千二百萬圓 即七割五分의 激增을 보리라는데 그增加의 原因은 潮流와 順調에 依한 原料魚의 浮游가 增加되것과 搾油率의 潤澤 鰮油肥의 市價가 昂騰하기 때문이라한다。

商工從業員 表彰式擧行

京城商工會議所商工從業員 第三回表彰式은 二十六日午後一時부터 公會堂에서 開催한바 賀田會頭로부터 受賞者五十六名(其中朝鮮人五十一名)에게 表彰狀과 表彰章을 贈呈하고 京畿道知事告辭에 이어서 殖產局長(代讀) 京城府尹、商工聯合會長、郡豐商聯盟會長의 祝辭가 잇고 受賞者代表答辭로 閉式하얏는데 受賞者朝鮮人五十一名의 氏名은 如左하다

(寫眞은表彰式場)

▲孫億根 ▲金永植 ▲洪泰植 ▲鄭日成 ▲朴啓洪 ▲李元瑞 ▲李東基 ▲安仁福 ▲金履泰 ▲金四成 ▲李明基 ▲禹德宇 ▲梁正煥 ▲金淳福 ▲李龍孫 ▲金萬泰 ▲朴仁載 ▲張昌男 ▲裵泳煥 ▲徐相範 ▲全順吉 ▲千福基 ▲韓昌洙 ▲尹昌植 ▲成炳運 ▲金鍾協 ▲李正夏 ▲金昌煥 ▲金初根 ▲任聖宰 ▲劉銀用 ▲朴明煥 ▲申龍雲 ▲金信成 ▲李順萬 ▲姜福男 ▲李鉉國 ▲李東雲 ▲張榮恒 ▲李定圭 ▲金姓女 ▲李順吉 ▲池卜同伊 ▲林長男 ▲朴蕃吉 ▲李昌成 ▲朴興燦 ▲裵仁根 ▲兪聖福 ▲宋得成 ▲金淳周

北朝鮮航路에 駿足船을 配船
大阪商船에서

大阪商船에서는 日本海航路 스피드에서 時代에 順應하야 일즉이 北朝鮮阪神航路의 스피드 [illegible] 津에 入港 羅津線開通後의 自營連絡貨物船에 配船하리라 하며 大同丸은 年末까지 龍興丸은 來春에 就航하기로되엇다 그리고 全部就航하는 同時에 目下北朝鮮阪神間에 配船中의 定期四隻臨時四隻 合計八隻中 不經濟線을 交替하야 他線에 配船하기로되엇다한다

魚油의 定量入札
高價로受託量增大

魚油共販 十月分定量入札數量은 咸北二六、二一五鑵、咸南一五〇、六三九鑵、江原三四、二三二鑵 合計四十四萬五千八百七十六鑵으로 二十六日入札을 實行할터인데 定量入札制는 最近의 魚油市場이 硬化油採算을 버서나 高價를 維持하야 不定量에 比하면 鑵當三、四錢의 高價를 繼續함으로 受託數量의 增大를 招來하고잇다

엿다는데 十一月一日부터 實施리라고한다

까소링價格引下

【東京電話聯合】日石、三菱、小倉、松方、라이징산、소코니의 內外各社로부터 共同請願이 잇다 꺼솔린引上問題는 貯油義務六個月延期와 義務에 對한 保證等幾多의 燃料國策에 關하야 五月各社申請以來 約半歲를 遷延하엿는데 町田商相은 일슥이 議會에서 聲明을 飜變하야 經濟的採算에 重點을두어 가론當 二錢五厘引上의 四十六錢으로 採決하야 二十六日 午前十一時 升本日石社長等 各社代表를 招致하야 吉野次官으로부터 그旨를 示達하다

魚肥統制形式
檢討가必要
魚油는現行이理想的
◇…西本水產課長談

魚油肥統制期限은 明年三月로 滿了됨으로 其後對策에 對하야 各種의 論議가잇는바 右에 對하야 總督府西本水產課長은 如左히 말한다

魚油肥統制의 滿了와 共히 當然統制를 繼續할必要가 잇스나 問題는 그 統制形式인데 魚油에 對하야서는 現在의 統制期間에 最初의 買取에서 硬化油逆算統制로되어 製造業者의 濫立으로 現行의 指名入札制度까지 遷移經過하야 現在에 及하얏다。

現行의 不定量과 定量併行의 入札制度는 理想的이라고는못하드래도 現狀에 最適한것이라할수잇는것으로 이 外에 改善의 方法이 업다고 思하는 一方 魚肥統制는 三菱에 獨占委託販賣를 行하고잇서서 이것도 能率的 形態이나 一面粕에는 뒤 쉬밀의 生產勃興等의 事情도 잇서서 朝鮮內需要增大도 豫想됨으로 無條件으로 現制繼續보다도 一應檢討를 加할 點이 잇슬줄안다云云

金鑛이 依然全盛
朝鮮內總鑛區四千三百五十四
五割이 目下採掘中

總督府鑛山課의 調査에 依하면 最近 朝鮮內의 鑛區數는 四千三百五十四에 達하는데 그中 採掘中의것은 二千二百六十二로 採掘을 含하는 活潑한 事業을 繼續하고잇는바 事業鑛山의 鑛區數에 占하야 過去數年間의 狀況을 보면 昭和五、六年은 모다 二割、七年三割、八年四割로 今年은 前에업는 好成績을 示하고잇다 就中 產金獎勵、金價昂騰等에 因하야 金鑛의 採掘은 目下 一千九百 [illegible] 으로 全採掘鑛區의 約九割을 占하고잇다

鑛夫平均賃金
六十四錢四厘

總督府鑛山課調査 昨年 鑛夫平均賃金은 六十四錢四厘로 前年平均 六十二錢四厘에 比하야 平均二錢의 昂騰을 示한바 이것을 鑛種別로보면 (單位錢 ◇平均 △減)

鑛	今年	前年	增減
金山	六七·六	六四·四	三·〇
金銀	六五·五	六〇·三	三·二
鐵	六四·四	六六·六	[illegible]
其他金屬	六五·一	五九·三	[illegible]
石炭山	七七·八	七六·八	[illegible]
有煙炭	八八·〇	八三·〇	[illegible]
無煙炭	六六·九	六七·七	[illegible]
非金屬	六三·四	五六·八	[illegible]
黑鉛	六三·七	五九·八	[illegible]
其他	六〇·〇	五五·五	[illegible]
平均	六四·四	六二·四	[illegible]

다시 道別을 보면 勞働者의 不足의 反映으로 八十四錢七厘를 最高로 平北의 七十一錢八厘 黃海의 六十六錢八厘 平南의 六十六錢四厘 咸南의 六十六錢一厘가 다음가며 全北의 五十八錢一厘 全南의 五十三錢八厘가 最低로 示하얏다

朝銀券漸增
―俸給과米穀資金―

二十五日現在의 朝鮮銀行券發行高는 一億六千七百五十二萬八千圓으로 지난 十九日 六千萬圓臺에 오른채 漸次 增發의 一途를 보이고잇는데 右는 歲末關係의 俸給支拂도 一因이되며 新米의 出廻에 伴하야 米穀資金의 貸出이라한다

經濟界消息

○朝鮮運送利益二十八萬圓=朝鮮運送에서는 二十八日 重役會를 開하고 今期決算案을 附議할터인데 今期利益金은 決算結果 二十八萬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五萬七千四百四十九圓增、前期보다 約一萬圓의 增加로서 同社로서는 記錄的業績이라하며 配當은 五分据置 剩餘金은 全部社內에 保留하리라한다

○長津江水電第一期發電=長津江水電에서는 發電을 除한 第一期工事가 完成後 通水試驗을 行한바 日本最初의 試驗인 川崎造船製鐵管의 通水가 好績으로 完了 目下發電機의 調整中인데 그도 今月中에는 完了될것으로 十一月初에 檢查가 終了되면 第一期第一次의 三萬六千키로 發電을 行하리라한다

不正漁業者取締
監視船出動掃蕩

朝鮮東海岸의 鰮漁業 及 明太漁期를 노리고 日本內地方面으로부터 不正漁業者가 頻頻히 出沒하야 漁場을 橫行한다는 報告에 接한 總督府殖產局에서는 이 徹底的掃蕩을 圖하야 近近取締船을 出動식히기로 決定하얏다

今日財界 (廿六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二九·九〇	一三 高
大阪期米 先限	三〇·二一	一〇 高
◎三等米 新石	二七·八〇	不變
正租(仁川)上 一斤價 下	二·二〇	[illegible]
◆市中金融		
貸金	一分割	一分割
預金	十三錢半錢	[illegible]

◆株	(單位圓)	
朝新	三二·八〇	[illegible]
東新	一六二·四〇	[illegible]
日產	八〇·[illegible]	[illegible]
◆商品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現	[illegible]	[illegible]

商況 (廿六日)

株式 押目買로 上進

前場昂騰 休日을 압두고 今朝前場은 押目買氣가 잇서서 東新부터 硬化하야 一齊高로 結局 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一圓八十錢高인 百六十二圓三十錢、日產一圓二十錢高인 八十圓四十錢、大新十錢高인 九十七圓五十錢、朝新十錢低인 三十二圓九十錢、日鑛新四十二圓六十錢에 各大引되고 朝取七十二圓五十錢、日爲五十六圓六十錢 各一本이잇섯다。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後場往來 後場은 [illegible] 閑散으로 別欄가티 止場하다。

期米 關門往來 少康

前場小戾 昨後場 阪地三十圓〇七錢止와 共히 二十七圓八十六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 三十圓十六錢인 九丁反高를 繼하고 二十八錢에 始한 後 阪地二三節 十五錢 同價로 結局 二十八錢에 場을 止함을 伴하야 五節丸玉의 賣崩로 九十一錢까지 小押하엿다가 結局 八圓〇二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往來 後場은 二十七圓九十九錢에 三丁低로 始場後 三節까지 同價이다가 四節二十八圓丁으로 五節 또 [illegible] 七圓九十九錢에 閑散往來로 別欄가티 止場하다。

當限決戰如何
實彈은完備!

一時 渡來의 蒐集難으로 阪地三十二圓二十錢臺까지 昂騰하엿든 當限이 其後 山種一派의 絶對活動으로 渡米를 完備한關係로 二百萬石을 買上하지 안흘수업슬것이다 그럼으로 買上을 먼저하는냐 또는 拂下를 먼저하는냐함이 問題인데 이點에 잇서서는 政府로서 愼重히 考慮할 米價調節의 一般的인것이다 此에 對하야 冷靜히 一考를 要하면 來月에 入하야 新米의 壓迫으로 低落을 免하기 어려운 것이다

先限前途에는
買上拂下橫在

政府는 二百萬石을 買替하기로 旣히 發表한바잇서서 就中 古米百萬石을 먼저 拂下하기로되엿스나 結局 拂下數量 百萬石에 對하야 六十七萬九千餘石밧게 拂下되지안헛다 그러면 此實殘石數 三十二萬石과 其外百萬石合計 百三十二萬石을 拂下하여야할모양이며 그反面으로는 買入[illegible] 二百萬石을 買上하지 안흘수업슬것이다 그럼으로 買上을 먼저하는냐 또는 拂下를 먼저하는냐함이 [illegible]

하는때는 大瓦落을 招來하기 十常八九일것으로 旣定方針을 變치 안는모양이다。 그럼으로 今後의 決戰이 如何히될지 자못 注目되는바이다。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聯合通】新甫發會로 市場은 幾分人氣가잇스나 四國風調로 不振이오 市勢도 保合이엇다
▲大同電力(新) 二一·〇 ▲宇治電(新) [illegible] ▲川崎造船 [illegible] ▲京阪電鐵 [illegible] ▲鐘紡(新) [illegible] ▲東京電燈 [illegible] ▲日本產業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illegible] 東新이 東新다운 本性을 發揮하야 先高될것이라고 某筋은 壯談하얏다。

强氣의 壯談
東新先高되라고

金融界는 平靜이오 暴落을 免하나 國內事情으로보면 米、麥、小麥其他農產物價도 上昇세를 보이고 [illegible] 百六十圓往來臺에 못지안타는것을 [illegible] 日本까지도 다시 八十圓臺로 올라갈는것이라는말이엇다 [illegible]

昨今에 入하야는 三十一圓二十錢臺인 實로 百丁가량의 反落을 告하엿스며 딸아서 先限도 七十丁의 反落을 示하엿다 實로 富籤은 數日內로 終幕을 告하게 되는바 買方은 渡米三十丁의 大損을 내리라하는것이다 이에 不許로 受來를 斷行하려 할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今回에 莫大한 渡米는 舉皆 古米이며 多大量 一圓以下의 입으로 渡方의 不利도 엇지안켓만 受方의 損失도 것이다、 實로 過去 九限의 受來가 一石에 對하야 五、六圓의 損失을 先限前途로보아서 受方으로서도 受來를 繼續하지안는바는아니나 此富限의 實物을 引退 又는 乘替의 方式을 取하려는때는 買上으로서 賣品도 止할것이오 眞一 昨今과 如히 低價를 防止할것이다。

市場六感

株 新東洋主義를내걸고 百五十萬의 黨員을가진 怪人 伊東『ハン二』는 二十四日 突然大阪에서 法網에 걸녀들엇다고▲『天才的相場師』라는 이름까지잇든 伊東은 東京兜町、大阪北濱에 나라나서는 一攫千金을 文字그대로하야 百萬 二百萬의 大金을 利喚하더만큼 젊은 新思想家로서 株界名人으로서 全國的으로 羨望의 的이되고 王者를 凌駕할豪華한 生活을 하드것은 넷날이오 지금은 囹圄의 몸▲當局의 取調進行結果를 보기前에 果然稀世의 大詐欺漢인지 아닌지 는 모르거니와 仁川宮町某賣藥家도 被害者의 한사람이라하니 注目거리▲天津、日本을 往來하면서 東洋的으로 聲名이 놉든 被氏의 假面이 어떠케 暴露되라는가? 興味百%

米 賣方의 渡米는 完備되모양이나 大部分이 古米이쪽受米後의 處分이 難問▲過去 九限의 受來도 受方으로서의 大損失을 生하엿스니 今回受米의 換金도 엇지 안흘모양이라고▲그러나 買方이 受米를 忌避하야 撤退 又는 乘替를 하게되는 때는 數段瓦落을 免치못할 모양이니 참아리 울며 겨자 먹기를 하는수 박게 ▲昨日仁川正米市場에는 新租八千叭이 出廻되엿다고 本年產의 出廻로 처음 大量인 뿐아니라 時期가 時期인만큼 이로부터 出盛을 可期▲新營은 相當하다고하나 昨年同期에 比하면 얼마쯤 減少▲此는 正租檢査의 嚴格關係도 엇지 아니하지마는 地方的으로 共同販賣의 關係도 엇지안흘모양▲그런데 山市場에서 正租一斤에 七錢三厘의 行賣를함에 反하야 仁川市場은 依然八錢三、四厘▲兩地의 差額이 一錢이나되니 此原因은 무엇? ▲要하면 當地는 出廻의 狀況이 本格化하지안흔 關係도잇지나 持租側의 賣惜關係도不無

田中貞 三品側
▲買方 地場正米側 地場强氣側
村岡自己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illegible]	[illegible]
(中限)[illegible]	[illegible]
(先限)[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今前는 刺戟材料가 엇고 納會接近으로 當限은 波瀾一巡의 平이라 硬軟相殿、中限은 仕手關係로 引締이나 場面活氣薄、當限渡米不足金屬으로 爆發高를 豫想하나 意外平穩裡에 納會할것가다
▲賣方 神戶側 中東側 來客側

各地正米

京城不變 弱行 不振으로 一般이 彷徨하는狀態이오 閑散裡에 不變인 丸仁 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米二十白一圓七十錢

仁川閑散 正租의 新出廻와 天候不良으로 依然賣行不良이오 一般이 買氣 薄弱으로서 市況이 極히 閑散하야 丸仁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五錢

釜山不動 天候關係로 市場의 賣物이 二千叭으로 減하고 移出側은 日本內地採算不合으로 거의 彷徨하는 依然賣米側의 買氣 박으로 市勢不變이오 取引高 一、二三叭 角ㄱ三等二十九圓四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五十六錢

大邱引締 慶北管內의 凶作氣分濃厚로 一般이 騰入警戒이오 僅히 必要에 依한 買氣뿐으로 今朝는 前日上降雨로 賣物減退 氣配二十錢 引締인 角ㄱ三等二十九圓丁 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五十錢

群山小騰 殖產二十五個거의 買付物로 新規賣物이 少難이 엇스나 日本內地不賣와 阪地當限低를 移하야 氣配五錢低와 ⑳四等二十八圓九十五錢 五等二十八圓七十五錢 一等白米 十三圓四十錢

木浦不變 天候不良으로 出廻僅少이나마 日本內地採算不合으로 積極的買氣가 업고 市況이 沈靜裡에 保合인 丸ホ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標金市場暴騰

【上海二十六日發電通】通貨不安이 益益深化하야 前日의 引前에 一一一八弗까지 騰貴한 標金市場은 二十六日 다시 一一二六弗五〇仙까지 上放하얏다、寄付는 前日의 大引 一〇九七弗七〇仙에 比하야 二八弗八〇仙가량奔騰하고 一方對外爲替는 對英一志三片四分의三、對米三三弗四分의一、對日一二一圓二分의一로 對英은 八分의三、對米는 四分의三、對日은 二圓가량各히 漸落하야 모다 實賣物로 買手는 업서 市場은 混亂을 現出하고잇다

鈔票市場暴落

【大連二十六日發電通】鈔票市場은 上海金低、標金高關係로 前日의 引値에 比하야 一圓七十錢가량暴落하야 三圓丁으로 寄付하얏스나 上海市場의 亂調로 市場은 混亂하고잇다 그리고 特產市場은 今朝도 아즉 立會開始에 이르지못하얏다

近日中對和蘭
輸出統制法發動

【大阪電話聯合】日本絹、人絹織物輸出組合에서는 去八月十五日蘭印行人絹織物及絹織物의 輸出統制를 實施하얏는바 在日本蘭商、和蘭貿易그아옷트쌋이의 脫漏를 防止하기 爲하야드듸어 近日中에 輸出組合法第九條를 發動하야 輸出統制를 强化하게되엇다

金融 (廿六日)

項目		
◆海外經濟◆(二十五日)	[illegible]	[illegible]
◆朝鮮銀行券◆(二十五日)	[illegible]	[illegible]
◆日本銀行券◆(二十五日)	[illegible]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illegible]

米穀 (廿六日)

項目		
◆京城正米◆	[illegible]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illegible]

商品 (廿六日)

項目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illegible]
◆京城織物◆	[illegible]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illegible]
◆滿洲粕冲價◆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illegible]

株式 (廿六日)

項目		
◆朝取短期◆	[illegible]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前場)◆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後場)◆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illegible]
◆東京長期◆	[illegible]	[illegible]

期米 (廿六日)

項目		
◆朝取期米◆	[illegible]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illegible]
◆朝鮮期米實買高◆	[illegible]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七
電話長 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吉村取引店

金銀高價買入
殖金商會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七
電話本局四五八〇番

金買銀入
奬金號
京城貫鐵洞一二四
電話光一三九九